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강 혜 선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생산론의 관점에서 본 『금오신화』

교수 · 학습 방안

-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민 진

생산론의 관점에서 본 『금오신화』

교수·학습 방안

-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

강혜선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

이 민 진

# 인 준 서

이민진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6년 5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논문개요

고전문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상과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분야에서 교육적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고전문학은 그 시대를 살아간 작자들의 생각과 가치관, 경험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 혹은 여타 남겨진 매체 자료가 없어 구현하기 어려운 과거 시대를 비교적 구체적으로 알 수 있다. 즉, 과거시대를 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기록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국어 교육에서는 고전문학을 텍스트, 어휘 자체의 이해에 중점을 두고 교육하여 왔다. 그리고 사회·문화적 맥락이라는 당시의 시대상을 이해하는 것에 주로 관심을 두었다. 그러나 고전문학 텍스트가 이루어지는 맥락에는 작자층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향유층의 변화가 곧 문학 갈래의 변화를 이루었던 고전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아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작가를 중심으로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작가론이라고 한다. 비평이론의 관점에서는 생산론, 표현론이라는 용어로 이를 설명하고 있다. 문학교육에서는 비평이론의 관점을 수용하여 문학작품을 읽을 때 이를 쓴 작가의 가치관이나 경험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관점을 생산론 혹은 표현론이라고 한다. 교육과정에서도 비평이론을 문학 교육의 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대 문학에 국한될 뿐, 작가가 작품을 쓴 맥락이 작품의 해석에 큰 역할을 차지하는 고전문학의 경우는 생산론의 관점에서 교수·학습하는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본 연구는 고전문학 작품 중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을 비평이론 중 생산론의 관점에서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실린, 작가가 밝혀진 고전문

학 작품을 분석하여 생산론적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한 작가를 선별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작가들의 고전문학 작품과 작가의 연관을 교과서에서 어떻게 안내하고 있는지를 고찰한 후, 그 중에서도 김시습과 그의 작품을 어떻게 교수·학습하고 있는지 면밀히 고찰하였다. 교과서의 활동을 보완하여 2012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생산론적 접근에 따라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교수·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이생규장전」을 활용한 탐구 활동을 제시하였다. 학교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업 시간에 김시습의 생애와 『금오신화』를 탐구하는 것은 시간상 제약이 따르므로 방과 후 활동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 형태의 활동을 구성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포트폴리오 활동과 연관되는 교수·학습 모형을 구성하여 고전문학 작품을 생산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가 앞으로 고전문학을 작가의 가치관과 생애를 탐구하는 생산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교육할 수 있는 활동방안으로 활용되고 이를 통해 학습자의 문학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목 차

## 논문개요

<b>I. 서론</b>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사 검토 .....	4
<b>II.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작가별 고전문학 수록과     교육 양상</b> .....	10
1. 고전작가의 수록 양상 .....	13
2. 김시습과 그의 문학에 대한 생산론적 접근 양상 .....	19
<b>III. 생산론적 관점에서 설계한 『금오신화』의 교수-학습     방안</b> .....	23
1. 생산론적 관점의 『금오신화』 교수-학습 방안을 위한 이론적 검토 ..	23
2.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김시습의 생애와 『금오신화』 .....	26
3. 「이생규장전」의 본시 교수·학습안 .....	45
1) 성취기준 분석 .....	45
2) 교수·학습 과정 설계를 위한 요인 분석 .....	46
(1) 교수자 .....	46
(2) 학습자 .....	49
(3) 수업 모형 .....	49

3) 단원 구성 .....	52
4) 교수 · 학습 과정안 .....	53
5) 교수 · 학습 자료 .....	58
6) 평가 자료 .....	64
<b>IV. 결론 .....</b>	<b>65</b>

참고문헌

**ABSTRACT**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어교육에서 고전문학은 우리나라 문화와 역사의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많은 중등 학습자들은 고전문학을 어렵고 따분하다고 여기기 쉽다. 그러나 고전문학에는 국어와 국문학의 연원과 역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학습하여 그 의미를 깨달을수록 문학의 총체적 이해를 돕게 된다. 이는 곧 인간의 총체적 이해와 연관되어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인문학의 목표에 이른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고전문학을 어떠한 관점에서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중요하게 논의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까지 교육양상을 살펴보면, 주로 고전 텍스트의 어휘나 의미를 이해하는 데 급급해 있다. 그러나 고전문학의 이해에서 텍스트의 어휘보다 중요한 것은 텍스트가 이루어지는 ‘맥락’이다. 고전 텍스트의 맥락을 이루는 것은 장르나 작자층의 형성, 시대변화, 작가의 특징 등이 있다. 작자층의 형성이 장르의 형성을 이루게 되는 고전문학의 경우, 작가에 대한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중 ·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서는 글을 쓴 사람이 대체로 밝혀져 있다. 그리고 실제 수업의 장에서는 글의 종류라든지, 작자 소개의 효과 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거의 도식적으로 작자를 소개하고 있는 형편이다. 작자의 약력이나 업적 등을 판서까지 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학생들에게 과제로 부여하여 참고서를 이용하여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도식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보다 좀더 작자에 대해 유념하는 경우라도 대표작을 알려준다든지, 교사가 알고 있는 일화를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도식적인 작자소개의 방식과

함께 작자의 전기적 사실이 부정확하고 추상적이어서 글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sup>1)</sup>

문학교육에서는 비평이론의 교육을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다. 비평이론은 생산론과 구조론, 반영론과 수용론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고전문학은 그 중에서도 구조론, 혹은 절대론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왔다. 텍스트의 내재적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작품의 표면적인 의미와 단어, 문장에만 집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고전문학의 깊이 있는 이해와는 거리가 멀다. 현대 문학에서 시대와 문예 사조에 따라 다른 작품과 작가의 특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고전문학 또한 국가의 성립과 발전, 한글의 창제 등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문학담당층의 변화, 확대와 함께 작품과 작가의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의 문학적 문화의 변천을 살피기 위해서는 작가와 시대배경에 주목하여 고전문학의 작품을 가르치고 공부해야 할 이유이다.

특히 문학교육에서는 비평이론의 네 가지 관점 중 작가론의 관점을 ‘생산론’ 혹은 ‘표현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문학 작품을 작가의 ‘생산’ 혹은 작가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이다. 작가론이라는 용어보다 작가의 가치관의 표현 혹은 생산 활동에 더욱 중점을 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고전문학 역시 작가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산한 작품이고, 자신의 가치관 혹은 자신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가진 가치관이 나타나 있다.

작자는 단독자인 개인으로 활동하면서도 한편으로 그의 신분계층의 전형성 혹은 계층 이데올로기를 드러내게 되기 때문에 개인체험을 뛰어넘어 집단적 주체로서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심리학만으로는 해명되지 않는 면이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자를 규명하는 작업은 문학사회학의 도움을 입어야 한다. 문학교육에서 작가론적 관점이 소홀이 되는 이유는 작자와 작품을 연관짓지 않고 분석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방법 일변도로 교육이 행해지고

---

1) 우한용, 「문학교육과 작가론」,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6, 153-154쪽.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가 · 작품의 분리원칙에 입각한 방법이라 하겠는데, 미국 신비평의 영향을 비판 없이 수용한 결과로 여겨진다.<sup>2)</sup>

고전문학에서 작가는 작품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2011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선택과목 「국어Ⅱ」에서는 고전문학의 역사적 장르에서 담당 작자층을 교육내용으로 다루고 있다. 고전문학 작가의 사상과 생애에 대해 알고 이를 작품에 적용하는 것은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고전 작품에 대한 흥미 유발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의미 있는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계승 ·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

이러한 입장에서 작가에 대해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할 작품은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1435년(세종 17)~1493년(성종 24))의 『금오신화(金鰲新話)』이다. 소위 방외인(方外人)이라 일컬어지는 김시습은 경주의 남산에 은거해 있으면서 최초의 소설인 『금오신화』 다섯 편을 저술하였다. 그는 세조의 왕위 찬탈에 반대하여, 능력이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떠돌며 생을 보냈다. 그래서 생육신(生六臣) 중 한 명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또한 『금오신화』는 문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손꼽히는 작품이며, 전대 작품들과 비교하여 볼 때 작품의 구성에 있어서도 뛰어나 특징과 양상을 보인다. 『금오신화』의 내용은 중등 학습자들이 구조론의 입장에서만 다루기에는 어려운 점이 매우 많다. 『금오신화』가 최초의 소설로서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와 작품의 특징에 관하여 공부하기 위해서는 작가 김시습에 대한 이해가 우선 선행되어야 한다. 김시습이 사용한 문체나 글의 특성이 『금오신화』 전편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것이 『금오신화』를 소설 장르로 구분하게 만든 큰 특징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김시습의 행적과 사상, 삶의 중요한 사건 등을 살펴볼 때 비로소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의미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생산론적 입장에서 김시습과

---

2) 우한용, 위의 책, 154-155쪽.

그가 저술한 『금오신화』에 대하여 분석해 볼 것이다. 분석한 결과를 통하여 현재 중등 학습자들에게 주의하여 가르쳐야 할 부분과 『금오신화』의 교수-학습 상황에서의 유의점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 2. 연구사 검토

본 연구에 앞서 연구 주제와 관련된 고전문학 교육 연구사를 검토해 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고전문학 교육 연구 중에서도 거시적인 입장은 제외하고 논의와 긴밀히 연관된 내용을 추려 검토하였다. 고전문학 교육에서 작가론적 입장을 반영한 연구와 김시습 『금오신화』 교수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연구사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작가론적 입장을 반영하여 고전문학 교육을 연구한 논의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김성룡은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서거정을 중심으로 하여」에서 작가의 창작 맥락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을 교육하는 방안을 서거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고전작가론의 교육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서거정의 문학관을 세 가지로 나누어 살폈다. 관각문학인으로서의 서거정과 문학 능력에 대한 사상변화, 도(道)를 중심으로 한 미학적 관점을 살피고 서거정을 가르치는 문학 교육적 가치를 제시하였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가의 특수성을 중심으로 고전문학교육을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3)</sup>

정민재는 「문학치료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고전문학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에서 작품의 서사가 아닌 작가의 서사를 중심으로 문학치료 이론을 활용한 교육방안을 검토하였다. 입시나 학습 등의 스트레스로 여러 갈등을 겪는 학습자들이 문학의 공감적 능력을 바탕으로 심리적인 안정을 도모할

---

3)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 서거정(徐居正)을 중심으로 하여」, 『고전문학과 교육』, Vol.24, 2012.

수 있도록 하였다. 문학치료에서 현대문학이나 작품 서사가 아니라 고전작가의 생애나 사상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김시습이나 최치원 등 작가가 자신의 꿈을 온전히 펼치지 못한 작가들과 작품의 관련을 신세불합에 주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학습자들의 삶의 좌절과 혁신 등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방안을 연구하였다.<sup>4)</sup>

박영매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 여성작가 작품 고찰 : 성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에서 제 6차 교육과정 교과서에 수록된 고전 여성작가 작품을 전체 작품 구성을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고전 운문과 고전 산문으로 나누어 고전 여성작가에 대한 인식을 실제 중등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다. 운문의 경우 작자층을 양반 부녀자, 일반 부녀자, 기녀와 소실로 나누어 검토하였는데, 허난설헌과 신사임당, 김삼의당을 양반 부녀자 작가로 들었다. 일반 부녀자로는 「정읍사」 등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작품을 들었고, 기녀와 소실의 경우 황진이, 매창, 홍락, 이옥봉을 작가로 들었다. 산문은 양반 부녀자와 왕족 여인, 궁중 여인으로 나누었는데 양반 부녀자로는 남평조씨와 의유당 김씨가 있었다. 왕족 여인으로 혜경궁 홍씨의 작품 양상을 고찰하였고 궁중 여인은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계축일기」와 「산성일기」의 내용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고전 여성작가 작품에 대한 설문조사와 교과서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수록양상이 여성의 성역할을 특정하게 고착화시키고 여성관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그 결과 문학 교과서의 남성 작가 편중 경향 개선, 주체적 여성의 성역할과 관련 주제 수록 등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sup>5)</sup>

박양호는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연구」에서 다산 정약용의 생애와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식을 교육 활동과 교수 방안으로 연구하였다. 고전

4) 정민재, 「문학치료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 : 고전문학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5) 박영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 여성작가 작품 고찰 : 성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문학 교육에 있어서 작가론적 관점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다산 정약용의 애민 정신이나 경제관, 가정관 등 작가의식을 중심으로 교수·학습 활동을 구안하였다. 다산의 생애 교육 방안과 문학 교육 방안의 두 가지 관점에서 교육방안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up>6)</sup>

이와 같이 작가론의 관점에서 고전문학 교육을 접근하는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고전문학의 텍스트 교육에만 집중해 온 지금까지의 교과서의 양상과는 달리 작가론적으로 접근하려는 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가론으로 접근하는 고전문학 교육의 필요성을 논의하고, 고전문학의 작가를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 할 수 있어야 함을 논의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고전문학을 작가론의 관점에서 교수·학습하는 연구가 활발히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고전문학 역시 작가의 가치관과 경험에 따라 생산된 텍스트인 만큼 앞으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혜선은 「『금오신화』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에서 학습자 중심의 다양한 「이생규장전」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김시습의 작가의식이 『금오신화』에 반영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이생규장전」을 주제, 구성, 인물, 인귀교환 모티프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소설 읽기 과정을 ‘발견적 읽기’, ‘해석적 읽기’, ‘비판적 읽기’ 과정으로 위계화 시켜 「이생규장전」 읽기 학습을 제시하였다. 작품에 담긴 작가의 의식에 대한 학습 방법으로 체험학습을 제시하고 읽기 놀이 활동을 구안하였다.<sup>7)</sup>

최윤호는 「협동학습을 통한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교수·학습 방안」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고전문학을 학습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의 「이생규장전」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금오신화』 다섯 작품의 서사

6) 박양호,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7) 이혜선, 「『금오신화』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와 작가의식을 분석하고 그 중 「이생규장전」을 과제 분담 협동학습 모형과 ICT를 적용한 교수·학습 과정안으로 제시하였다.<sup>8)</sup>

심치열은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의 특징과 그 의미」에서 고등학교 문학 교과서에 가장 많이 수록된 「이생규장전」의 의의를 서술하고 교과서에 어떻게 수록되었는지 그 양상을 연구하였다. 「이생규장전」의 성격을 인물의 애정으로 절의를 형상화 한 소설로 보고 교육적 의의를 인정하였다. 학습을 받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교과서에 제재가 효과적으로 실려있는지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교과서에서 소설의 원본을 어떻게 나누어 어떤 부분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고찰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삽입시가 잘 드러나는 소설의 앞부분을 제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sup>9)</sup>

박수진은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이끌어내며」에서 전기소설의 특징 중 하나인 환상성에 주목하여 학습자 중심의 『금오신화』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작가가 왜 전기소설의 수법을 택했는지 학습자들이 답을 찾을 수 있는 교육 방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그 중 「이생규장전」을 <텍스트 체험을 위한 단계>와 <텍스트 체험 확장을 위한 단계>로 나누어 환상성과 애정 소설적 특징에 주목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sup>10)</sup>

유옥자는 「『금오신화』의 현장 교육적 방안 연구」에서 문학의 비평이론인 표현론, 반영론, 효용론, 구조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그 중에서도 효용론의 관점에서 『금오신화』 교수·학습 방안을 연구하였다. 『금오신화』를 통해 문학사적 이해와 표현 방법의 문학적 가치, 전기소설의 의의 등을 교육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고전소설 교육의 바람직한 방향으로 필독도서 선정

8) 최윤호, 「협동학습을 통한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교수·학습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9)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의 특징과 그 의미」, 『人文科學研究』 Vol.28,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10) 박수진,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금오신화』의 환상성을 이끌어내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과 위계적 지도, 토의·토론 학습 등 학습자 중심 고전문학 수업을 제안하였다.<sup>11)</sup>

김자현은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에서 사랑이라는 가치관에 초점을 두고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였다. 사랑 중에서도 부모님에 대한 효나 남녀간의 정절, 책임감을 대표적 내용으로 설정하고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연구하였다. 「이생규장전」의 전문을 학습하여 작품의 내용과 가치를 학습할 수 있는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sup>12)</sup>

김영재는 「전기소설 교육 연구 : 『금오신화』를 중심으로」에서 『금오신화』를 대상으로 전기소설의 교육 현상을 분석하였다. 전기소설의 문학적 특징을 중시하는 교육을 위해 수용자의 주체적인 역할과 전기적 요소가 가지는 작가의식의 특징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통해 실제 중심 교수·학습 모형을 중심으로 속성 중심, 활동 중심 모형의 요소를 접목하여 「이생규장전」의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였다.<sup>13)</sup>

김주섭은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방안 연구」에서 고전 작품의 교육적 가치를 분석하고 김시습의 생애와 「이생규장전」에 투영된 작가의식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문학적 삶에 중점을 둔 학습 모형을 구안하였다. 팀 별간 과제 분담 모형과 읽기 모형, 체험 모형을 통해 「이생규장전」을 교육하고자 하였다.<sup>14)</sup>

유지영은 「『금오신화』 텍스트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에서 현행 교과서 텍스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 방안을 연구하였다. 제 7차

---

11) 유옥자, 「『금오신화』의 현장 교육적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12) 김자현,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13) 김영재, 「전기소설 교육 연구 :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14) 김주섭,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교육과정 교과서에서 「이생규장전」과 「만복사저포기」만 실린 것을 지적하며 『금오신화』의 독특한 분위기를 형성하는 김시습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작품도 수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교과서에서 보이는 발췌 수록의 양상은 단편적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삽입시 배재 등 장르를 왜곡시키는 문제점을 야기한다고 지적하였다. 문제해결 방안으로 『금오신화』 전문자료집 배포, 체계적인 고전 문학 독서 텍스트의 개발, 현대국어 번역자의 이름 명시 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생규장전」을 창의적으로 학습하는 활동의 방향을 제안하였다.<sup>15)</sup>

이와 같이 많은 연구에서 고전문학을 여성작가, 문학치료, 사랑, 문학적 텍스트 등 여러 관점으로 검토한 것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문학사적 가치라는 측면에서 고전문학, 특히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다양한 관점에서 활용하려고 했다는 의의가 있다. 작가론, 생산론의 관점에서 『금오신화』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논의는 없었지만, 교수·학습 과정에서 작가인 김시습과 작품을 연결하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그러나 고전문학 작품을 심도 있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작가의 삶과 관점으로 독해하는 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15) 유지영, 「『금오신화』 텍스트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II. 현행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 작가별 고전문학 수록과 교육 양상

앞 절에서 살핀 연구의 결과 고전문학 교육에서 작가론적 관점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실제 중등 학습자들이 학습하는 교재인 교과서에서는 고전문학의 작가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문학 교육에서는 작가론을 비평 용어로 재구성하여 ‘생산론’이라고 일컫는다. 즉 문학을 작가의 생산으로 바라보고 작품을 해석하는 관점이다. 교과서에서는 고전문학을 생산론적 관점에서 접근이 가능한 고전작품을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작가가 밝혀진 고전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고등학교 국어과 교과서의 작품 수록 양상을 살펴보았다. 고등학교 1학년 선택과목인 「국어 I」 6종, 「국어 II」 6종,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인 「문학」 9종의 교과서의 고전작품 수록양상을 분석하였다.

<표 1> 고전작가작품 2009개정 교육과정 교과서 수록 양상

장르			작가	작품	교과서	작가론 여부 <sup>16)</sup>
한글문학	시가	시조	원천석	눈마자 휘어진 대를~	국어 I 비상교육	×
			송순	십년을 경영하여~	국어 I 비상교육	○
					국어 II 미래엔, 신사고 문학 창비	
황진이	동지스들 기나긴 밤	국어 I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			

			을~	문학 천재교과서, 비상교과서, 창비		
			청산은 내 뜻이오~	문학 신사고		
		이황	도산십이 곡	국어Ⅱ 두산동아 (한국 문학의 전통에 대한 설명문 중 일부) 문학 동아출판, (주)지학사, 신사 고	○	
		김천택	강산 조흔 경을~	국어Ⅰ 천재교육(5-(3)관동별곡 단원의 학습활동 중)	×	
		윤선도	어부사시 사	문학 동아출판	○	
			잔 들고 혼 자 안자	문학 신사고		
			만흥	국어Ⅰ 두산동아 문학 비상교과서		
		성삼문	수양산 벼 라보며~	문학 천재교과서, 비상교육	×	
		한호	집(방석) 내지마라~	문학 천재교과서	×	
		신흙	헛가래 기 나 자르나~	국어Ⅱ 신사고	○	
		이정보	국화야 너 는 어이~	국어Ⅱ 신사고	×	
		맹사성	강호사시 가	문학 미래엔	○	
	가 사	정철	관동별곡	국어Ⅰ 미래엔 국어Ⅱ 비상교육, (주) 교학사	○	
				속미인곡		국어Ⅱ 두산동아 문학 동아출판, 천재교과서, (주) 지학사, 비상교과서, 창비
				사미인곡		국어Ⅱ (주)지학사
		허난설 현	규원가	문학 천재교과서	×	

			안조원	만언사	문학 천재교과서 (2-(4)교술갈래의 흐름-공방전의 학습활동 중)	×	
			정극인	상춘곡	문학 미래엔, 해냄에듀, 신사고	×	
		속요	정서	정과정	국어Ⅱ 두산동아 (1-(2)속미인곡의 학습활동 중), 신사고	×	
					문학 천재교과서 (1-(1)속미인곡의 학습활동 중)		
	산문	소설	김만중	구운몽	국어Ⅰ 천재교육	○	
				사씨남정기	문학 천재교과서, 비상교과서, 신사고		
		수필	혜경궁 홍씨	한중록	국어Ⅰ (주)교학사 국어Ⅱ 신사고	×	
	한문학		한시	정지상	송인	국어Ⅱ 비상교육(5-(2)제망매가의 학습활동 중)	△
				이육봉	자술	문학 동아출판	△
		산문	수필	박지원	하룻밤에 강물을 아홉 번 건너며	국어Ⅱ 천재교육	○
글쓰기 병법 (원제: 소단적치인)					국어Ⅱ (주)교학사		
통곡할 만한 자리					문학 동아출판, 천재교과서, 미래엔		
소설			허생전	국어Ⅱ 비상교육, (주)지학사			
			광문자전	문학 해냄에듀, 신사고			
			호질	문학 창비			
소설		김시습	이생규장전	문학 동아출판, 천재교과서, 비상교과서, 신사고	○		

			만복사저 포기	문학 (주)지학사	
	가 진 한 시	이규보	국선생전	문학 동아출판	○
	수 필 수 필		동명왕편	문학 천재교육	
	수 필 수 필		이옥설	문학 미래엔	
	가 진	정약용	수오재기	문학 비상교과서, 신사고	○
	수 필	허균	통곡헌 기	국어 I (주)지학사	○
	가 진	임춘	공방전	문학 천재교과서	×
	수 필	권근	주옹설	문학 천재교과서	×

## 1. 고전작가의 수록 양상

이상의 표를 살펴보면, 고등학교 교과서에서는 정철, 이현보, 박지원, 이황, 김시습, 허균, 김만중 등 고전문학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윤선도는 시조 뿐 아니라 한시와 한문 산문에도 능한 작가였지만 그를 대표하는 시조만을 가르치고 있다. 정철 역시 한문문학보다는 그를 대표하는 국문시가를 중심으로 교과서에 실려 있다. 그리고 정철이 가사를 통해 국문시가의 미학을 확대한 만큼, 시조보다는 가사작품을 많은 교과서에서 다루고 있다.

16) 작가론 여부는 작가의 생애와 문학관을 알 수 있는 자료, 작가가 쓴 다른 작품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상호텍스트적 맥락의 자료가 문헌으로 남아있는지를 기준으로 하였다.

국문문학의 경우, 작가가 밝혀지지 않은 후기 시조나 사설시조, 판소리계 소설, 가면극 등을 제외하였기 때문에 한글이 창제된 이후부터 조선 전, 중기에 이르는 전기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실려 있다. 한글이 기층민에게까지 확대된 이후에는 많은 무기명의 작자들이 문학을 생산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몇몇을 제외하고는 글을 쓰고 다루는 데 익숙한 양반 계층의 지식인들의 작품이 대다수이다.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문학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대부들이었다. 이들은 자신의 작품을 모두 필사하여 남겼는데, 후대인들이 이를 문집으로 구성하였다. 그 중에서도 국문문학은 정식 문집에는 포함하지 않고 ‘별집(別集)’이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문집으로 구성하거나 정철의 『송강가사(松江歌辭)』와 같이 가사집 등으로 구성하였다. 사대부 문인들에게 국문문학은 주된 문학이 아니라 노래를 하거나 흥취를 표현할 때, 혹은 특정 인물이나 계층을 대상으로 할 때 사용하는 문학이었기 때문이다.

이전에 비해 한문학의 작품이 확대된 것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고전문학에서 지식인 계층은 한문을 가지고 문학을 하였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지식인들의 문학과 사상을 이해하여 문학적 문화의 소양을 넓히기 위해서는 한문학이 필수적이다. 한문소설 뿐 아니라 박지원의 「통곡할 만한 자리」, 정약용의 「수오재기」, 허균의 「통곡헌기」 등 한문수필을 대거 수용했다. 이는 고전수필의 폭이 넓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고전수필도 현대수필 못지않게 문학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변화라고 평할 수 있다. 그러나 유명한 작가의 한시작품이 적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한문학도 국문학의 중요한 위치에 자리하고 있는 만큼, 한시를 통한 고전문학의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한시작품을 대표하는 최치원과 한시의 발전기에 해당하는 삼당시인, 한국적 한시의 포문을 연 김창흡, 후기의 여항시인 등 한시 작가와 작품에 대한 교육이 요구된다.

여성작가로는 황진이와 허난설헌, 혜경궁 홍씨를 들 수 있다. 시조의 경우 작

자층이 매우 한정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사대부 문인과 이들과 풍류를 즐기는 기생 계층의 경우에만 한정되어 있다. 기생을 대표하는 황진이의 시조를 통하여 당시 사대부의 풍류문화와 기생 시조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다. 반면 가사는 작자층이 확대되었다. 사대부 문인 뿐 아니라 사대부의 여성, 기층민과 종교인 등 조선 후기로 갈수록 전 계층으로 확대되었다. 기본적으로 4음보 연속체라는 개방적인 형식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사의 주제는 담당층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내용에 따라서 은일가사, 기행가사, 규방(내방)가사, 도덕가사, 종교가사, 개화가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작가가 밝혀진 규방가사의 대표작인 허난설헌의 <규원가>를 통해 여성가사, 특히 규방가사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혜경궁 홍씨의 『한중록』은 최근에 교과서에서 논의되기 시작한 작품으로, 이 역시 한문수필과 마찬가지로 고전수필의 확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전까지는 교과서에서 다루어 온 작품들이 소설과 시 장르에 국한되어 있었다면, 다양한 산문의 수용을 통하여 수필 장르까지 아우르고 있다. 수필은 자기고백적인 장르로, 작가와 작가의 사상, 작가가 속한 계층의 가치관을 가장 직접적으로 드러낸다. 따라서 학습자들은 이를 통하여 각 수필 작품의 담당층들이 가진 사상과 고뇌에 대하여 엿볼 수 있다.

위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교과서에 실린 작가들 중에서 작가론의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는 작가로 한글문학에서 송순, 이황, 윤선도, 신희, 맹사성, 김만중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문문학에서는 박지원, 김시습, 이규보, 정약용, 허균을 들 수 있으며, 한시작가인 정지상과 이옥봉은 까다롭지만 작가론적 접근 자체는 가능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이규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시대의 문인이며, 자신의 문집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다. 물론 이러한 문집은 사후에 후손이나 제자가 출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한호는 조선시대 문인이기는 하나 글씨를 잘 쓰는 명필로서 더욱 유명한 인물로, 작가론으로 분석하기

에는 어렵다. 고려말 조선초의 문인들 중에서도 고려에 끝까지 절의를 지킨 원천석이나 권근은 자료가 많지 않아 작가론적 접근이 어렵다. 그러나 조선의 기틀을 세우는 데 함께한 문신인 맹사성의 경우는 가능하다. 계유정난(癸酉靖難, 1453년)을 중심으로 볼 때도 이 이후 사사를 당한 사육신 성삼문의 경우는 작가론적 접근이 어려우며, 고향으로 내려가 버린 정극인도 그러하다. 예외적으로 김시습은 벼슬을 하지 않고 방랑길을 떠났지만, 자신의 기록을 여럿 남겨서 작가론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같은 시대, 시기라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생산론적 접근 가능성 유무가 달라진다.

여성작가들은 자신의 기록을 남기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기생인 황진이 는 생몰년도도 정확히 알 수 없다. 혜경궁 홍씨는 정조의 어머니이며, 궁궐에 있는 높은 신분의 여성이기는 하지만 당시 여성이라는 신분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한중록』 이외에 다른 기록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 허난설헌의 경우 우리나라 최초로 문집을 발간한 여성이기는 하지만, 27세에 사망하기 전, 자신이 쓴 글들을 모두 불태워버리라는 유언을 남겼다. 동생인 허균이 누님인 허난설헌의 글을 기억하여 다시 저술한 것을 중심으로 문집을 발간하였다. 따라서 정확한 그녀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

교과서에 실린 내용들을 살펴보자면, 향가, 한문 수필, 가전체, 국문소설, 한문소설, 시조, 가사 등 대표적인 고전문학 갈래의 대표작들을 교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 작가와 여성 작가를 모두 다루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이규보, 김시습, 박지원, 윤선도, 김만중, 정철 등 많은 기록과 족적을 남긴 고전작가들의 작품을 다수 다루고 있다. 그러나 단편적인 작가와 작품 소개는 나와 있으나, 작품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작가에 대한 이해는 부족하다. 현대문학 작품과 고전문학 작품 모두 작가론의 입장보다는 작품 그 자체의 기법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시에서 화자와 운율의 기능을 잘 알 수 있는 작품이라던지, 소설에서 액자 형식의 구조를 잘 드러내

는 작품 등을 선별하여 소개하고 있다. 문학작품의 텍스트 그 자체를 중시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문학사를 교수하는 단위에서는 생산론적 접근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대문학 작품에 비하여 고전문학 작품의 생산론적 접근은 부족하다. 고전문학은 장르와 담당층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서술하고 있다. 고전시가의 경우 향가의 형성과 전개, 고려 신홍 사대부의 대두와 경기체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신홍 사대부의 요구에 의해 생겨난 시조와 가사의 갈래와 그 형식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특히 가사작품으로 정철의 예를 들고 정철의 시가를 높이 평가한 『서포만필』의 한 부분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작가 정철에 대하여는 생물연대와 대표 작품만을 각주의 형식을 빌어 매우 짧게 서술하고 있다. <속미인곡>의 전문을 인용하고 ‘대화 형식을 빌어서 임금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표현한 데 주목’해야 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정철이 왜 임금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왜 그러한 마음을 대화로 표현하였는지에 대해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정철이 조정에서 물러나 임금을 그리워하는 가사를 지을 때 왜 화자를 천상에서 내려 온 ‘여성’으로 설정하였는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철이라는 작가와 그의 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속미인곡>이 충신연주지사의 전통을 잇는 시가이며, ‘미인’, ‘백옥경’, ‘구름’과 같은 시어의 의미에 대해 찾아보는 활동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그 전통을 잇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임금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된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외에 충신연주지사에 관한 전통의 설명이 없어서 학생들이 <속미인곡>을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 보인다.

「사씨남정기」의 경우도 생산론적 접근이 부족하다. 조선 숙종 때 김만중이 지은 한글 소설이며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나 처첩 갈등, 정쟁과 유배 등을 통해 창작 당시 조선의 사회적 현실을 드러낸 작품이라고 설명한다. 인현 왕후 폐위 사건과 작가 김만중의 생물연대에 대해서도 각주로 짧게 설명하

고 있으나 정쟁과 유배, 처첩 갈등의 양상이 소설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특히 「사씨남정기」가 가정의 문제를 사실적으로 그려낸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한 의의를 높게 사고 있으나 유교 사상에 근거한 사대부 문인인 김만중이 왜 인의예지나 충을 그리는 소설이 아닌 여성의 이야기를 그려냈는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이 없다. 어떠한 이유에서 가정 소설의 영역을 개척하게 되었는지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김만중과 어머니와의 관계나 정치적 입장을 드러낸 자료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씨남정기」에 정쟁과 유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기 위해서도 그러한 자료의 교수가 필요하다. 고전문학의 깊이 있는 교수를 위해서는 작가론적 접근을 더욱 연구해야 한다. 작품을 둘러싼 맥락을 학습하는 것 역시 문학작품의 이해를 돕는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다.

현대문학의 경우에는 문학의 역사와 더불어 나타난 문예사조의 특징과 작가가 가지는 교유한 특징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눈>의 작가 김수영의 경우 1960년대를 대표하는 현실 인식과 사회적 실천성을 중시하는 시인으로 소개하고 있다. 4·19와 5·16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을 기반으로 순수 문학의 정신과 현실을 비판하는 참여 정신을 보여야 하느냐를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모더니스트였지만 4·19 혁명을 기점으로 참여 정신을 보이는 시인 김수영에 대하여 교수하고 있기 때문에 <눈>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학생들이 탐구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문학과 현실 문제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김수영 시론의 일부를 제시하고 있다, 김수영이 쓴 ‘제 정신을 갖고 사는 사람은 없는가’와 ‘창작 자유의 조건’을 그의 문학관을 나타낸 자료로 제시하여 학생들은 김수영의 사상과 문학에 대해 비교적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의 시어인 ‘기침’과 ‘가래’의 의미를 쉽게 찾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언급한 <속미인곡>의 시어 ‘미인’, ‘백옥경’, ‘구름’의 의미를 찾는 과정과 비교할 수 있다. 전고와 고사의 활용 등으로 텍스트의 이

해가 어려운 고전문학의 시어의 의미를 찾는 과정이 현대문학에 비해 너무 단순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다수의 고전문학 작품을 다양한 관점과 목표로 교수·학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론적 입장에서의 고전 작품 교수·학습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작가의 생애와 사상을 고찰하여 고전작품을 교육하는 것은 작가 개인의 삶 뿐 만 아니라 그 문학을 향유했던 ‘담당층’의 성격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고전문학 교육에서 보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다.

## 2. 김시습과 그의 문학에 대한 생산론적 접근 양상

대부분의 교과서에서 소설의 출현을 설명하면서 작가 김시습과 『금오신화』의 의의를 매우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 중에서도 「만복사저포기」와 「이생규장전」, 특히 「이생규장전」을 제재로 학습 활동을 구성하고 있다. 교과서에서는 작품이 가지는 소설로서의 특징과 전기성(傳, 奇性)애정소설의 면모, 소설에 삽입된 시의 기능에 주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그러나 작가 김시습에 대한 소개는 매우 단편적이다. 김시습의 소개에 대해 교과서에 나타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시습은 조선 전기의 학자로 수양대군의 왕위 찬탈에 분노하여 세상을 떠나 방랑한 생육신의 한 사람이다. 당대의 현실을 묘사한 작품을 많이 지었고 대표작으로 『매월당집』이 있다. 유학자이지만 불교와 도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전래 신화와 『전등신화(剪燈新話)』의 영향을 받아 경주 남산에서 『금오신화』를 창작하였다.

교과서에서는 『금오신화』의 전기성에 주목하여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내

용이지만 소설의 내용이 사실적으로 느껴지는 이유를 찾아보라고 지도한다. 이는 자아와 세계의 팽팽한 대결을 통하여 삶의 진실성을 추구하는 소설의 특징을 교수하기 위한 활동이다. 그런데 김시습이 왜 전기소설을 통하여 삶의 진실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는지 위의 내용을 통하여서는 알 수 없다. 전기성이 사건 전개에 하는 역할을 찾아볼 수 있도록 지도하지만 김시습이 다른 조선 전기 지식인과는 달리 전기성을 효과적으로 문학에 활용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타나 있지 않다. 학생들은 대부분 최초의 현대소설을 쓴 작가 이광수가 계몽주의 사상가였고, 유학 생활 중에 근대 문학에 관련해 공부하여 여기서 영감을 받아 『무정』을 창작하게 되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광수와 마찬가지로 천재 지식인이었던 김시습이 왜 최초의 고전소설을 창작하게 되었는지를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다. 교과서에서 김시습의 단종과의 관계를 우의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을 참고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지만 이는 단편적인 사실에 불과할 뿐이다.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의 영향을 받았음을 소개하면서 『전등신화』를 명나라 구우(瞿佑)가 지은 전기체 형식의 단편소설로 고금의 괴담(怪談)과 기문(怪談)을 엮은 것이라고 설명한다. 인물의 갈등 구조와 작가의 창작 의식, 작품의 시공간적 배경 등에서 『금오신화』가 『전등신화』와는 다른 독창적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데 그 독창적 면모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김시습이 왜 ‘전등신화’의 전통을 독창적으로 계승할 수 있었는지 알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금오신화』가 가진 세련된 전기소설의 특징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금오신화』에서 죽은 자와의 사랑을 통해 현실에서의 사랑이 어려운 것임을 역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하지만 왜 김시습이 죽은 자와의 사랑을 주제로 소설을 창작했는지를 드러내는 자료는 없다. 조선 전기라는 당대 현실에서 충이나 유교적 관념이 아닌 현실적인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김시습

의 창작 의도에 대해 의아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처럼 교과서에 나타난 『금오신화』와 작가 김시습에 대한 교수 내용을 작가와 작품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작품의 깊이 있는 이해를 돕는 것에는 부족한 면이 있다. 위와 같은 양상으로 교수-학습한 뒤 학생들은 『금오신화』를 비현실적인 전기소설인데 최초의 소설이라고만 이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전기성을 김시습이 선택할 수 있었던 효과적인 표현 수법이 아니라 근대화되지 못한 서투른 문학적 기법으로 여기게 될 염려가 있다.

현재의 문학 교육은 작가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하지 않는다. 이는 텍스트 중심, 독자 중심의 문학 이론의 영향 때문이고, 허구 중심의 갈래 이론의 영향 때문인 것 같다. 그동안 고전문학사와 현대문학사의 단절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문학 교육에서도 고전 문학 교육과 현대 문학 교육의 일관성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sup>17)</sup>

그러나 작가의 창작의도와 작자층의 형성과 장르의 형성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한 고전문학의 경우, 작가론적인 접근이 작품의 이해를 돕는데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박지원이 왜 「호질」과 「통곡할 만한 자리」를 지었는지 알 수 있기 위해서는 그가 열하에 가게 된 맥락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 평소에 박지원이 가진 사상을 나타낸 자료에 대한 안내도 있어야 한다. 역시 양반계층인 윤선도가 왜 어부노래인 「어부사시사」를 짓게 되었는지 알기 위해서도 윤선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생들이 고전작품을 의미 있게 공부하고 그 내용과 맥락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생산론적인 입장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문학교육에서 문학 작품의 읽기 교육에서 비평이론을 재구성하여 작가의 관점에서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을 ‘생산론’이라고 한다.<sup>18)</sup> 이

---

17)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1쪽.

18) ‘생산론’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III-1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는 문학작품을 작가의 표현, 혹은 생산으로 보는 관점이다. 작가론이라는 용어와 비교해보면, 문학 교육에서는 작가의 ‘표현’행위를 더욱 중시한 용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전문학 역시 생산론적 관점에서 연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

### Ⅲ. 생산론적 관점에서 설계한 「금오신화」의 교수-학습 방안

#### 1. 생산론적 관점의 「금오신화」 교수-학습 방안을 위한 이론적 검토

문학교육에서 중요한 교육의 두 축은 창작과 비평이다. 문학에서 창작과 비평의 이론들을 교육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문학에서의 비평이론은 그 종류가 매우 많고 학자에 따른 접근 방법도 다양하다. 그 중 문학교육에서 수용하여 재구조한 네 가지의 관점은 작가, 작품, 사회 · 문화적 맥락, 독자의 관점에서 작품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다. 그 중 작가론은 비평이론의 한 종류로 문학 작품을 쓴 작가의 의식이나 생애, 사상, 고유한 문체 등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문학교육에서는 비평이론에 근거하여 이를 ‘생산이론’<sup>19)</sup>이라는 용어로 재정의하고 있다. 문학작품을 작가가 ‘생산’한 것이라고 바라보는 관점이다. ‘생산’이란 ‘창작’과 같은 뜻이다. ‘창작 활동’이라는 용어가 학습자들에게 문학 표현 활동이 작가만 할 수 있는 고상하고 수준 높은 것이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가 있다는 관점에서 ‘생산 활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문학 교육에서의 생산이론은 작가와 작품의 관련성에 대해 분석하고 판단하는 작가론과 같은 것이다. 작가론과 생산이론의 관계와 문학 교육에서 이를 어떻게 교육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겠다.

작가론이란 역사 · 전기적 비평의 한 종류로 작가의 일대기(전기적 요소)와 특정 작품과의 관련성을 분석, 비판하여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박종석, 『작

19) 번역가에 따라서 작품을 작가의 ‘표현’이라고 해석하여 ‘표현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본 고에서는 ‘생산이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가 연구 방법론』, 역락, 2002, 20면-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 : 조연현과 『현대문학』 지를 중심으로」에서 재인용) 작가 연구를 지칭하는 것에는 ‘작가연구/작가론/전기/평전/자서전’ 등 조금씩 뜻을 달리하는 용어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작가의 삶을 통하여 그 문학을 밝혀보려는 경우/ 작품을 통하여 작가의 문학적 생애를 밝혀보려는 경우/ 작가의식이나 작가정신을 규명해보려는 경우/ 작가의 문학적 생애 자체에 관심을 두고 기술하는 경우 등 필자가 역점을 두는 바에 따라 기술 형태가 다르기도 하다.<sup>20)</sup>

이처럼 작가론을 통하여 작품을 분석하게 되면 특정 작품만이 가지는 의미나 특징을 더욱 잘 이해할 수 있다. 독자가 작품을 타당하게 해석하는 것은 작가가 작품을 쓴 맥락이나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사상을 파악하는 데서 도움을 받는다.

생산이론은 ‘표현론’과 통한다. 이 이론은 문학 작품을 작가의 체험, 사상, 창작 의도, 감정 등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비평의 관점이다. 문학 작품은 한 개인의 창작이며, 그 속에는 작가의 개성이 반영되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 이론은 전통적으로 작가를 두 층위의 존재로 인식해왔다. 개인으로서의 작가와 집단의 대표자로서의 작가이다.

이러한 방식의 주제 추론 학습을 위해 교사는 창작 주제, 즉 작가에 관련된 생애사적 자료와 창작 동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풍부하게 마련하여 학습자에게 제공하거나 그러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그리고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읽기를 통해 작품과 작가를 연결 짓는 활동을 기획해야 하며, 그에 바탕하여 학습자가 스스로 주제를 추론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sup>21)</sup>

생산이론은 큰 범주에서 작가론과 의미가 유사하다. 문학을 작가의 ‘생산물’

---

20) 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 : 조연현과 『현대문학』 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118쪽 각주 참조.

21)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역락, 2014, 97-99쪽.

로 보는 관점, 혹은 작가의 '표현'으로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생산론 혹은 표현론이라고 한다. 작가는 개인의 작가일 수도 있지만 사대부, 여성, 중인 등과 같이 특정한 계층을 대표하는 집단으로서의 작가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지위 혹은 개인의 작가이던 자신의 특징을 작품에 투영하였다는 것이다.

이상의 작가론과 생산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가장 최근, 2012년 고시된 2012-14호 고등학교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생산론에 관련된 교육방법과 내용에 대해 분석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국어 I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고등학교의 국어와 문학시간에서도 생산론적 입장에서의 논의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이를 교육하고 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주로 선택하는 과목인 국어 I 의 (15)의 내용은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생각과 가치, 독특한 개성에 대하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언어 구사 방법, 형상화 방법 등에 나타난 작가의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하고, 이를 자신의 개성과 비교한다. 그리고 이를 문학 과목에서 확장하여 작품에 담긴 시대 상황과, 당시 사람들의 생각에 대하여 알 수 있다. 작가의 가치관에 따라 부각된 내용이나, 작가가 처한 시대 상황에 따라 부각된 내용 등 작품에 나타난 당대의 의식에 대해 이해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시대 배경을 현재 사회와 비교하여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는 중등 학습자의 능동적인 작품 해석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작가는 작품을 통해 자신이 해석한 바의 세계상을 담고 가치관을 표현한다. 독자는 작가가 해석하여 우리에게 보여준 세계의 상과 가치관을 수용한다. 이렇게 해석된 세계상과 가치관을 수용할 때에 피할 수 없는 물음은 이렇게 해

석된 세계상과 가치관은 과연 타당하고 적절한가 하는 것이다. 그것은 작가가 실존했던 창작 맥락에서 떼어내어 독자의 수용 맥락으로만 판단할 수 없다.<sup>22)</sup>

교육과정에서는 작가가 표현한 자신의 개성과 문학 작품에 나타난 시대 상황, 당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를 자신의 개성, 현재의 수용 맥락과 비교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특히 고전문학에 있어서 이러한 교육활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고전문학이 이전에 창작된 문학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맥락과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전문학을 작가론, 생산이론적인 입장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2. 포트폴리오를 활용한 김시습의 생애와 『금오신화』 탐구

한 작가의 생애 전반을 살펴서 이를 작품과 연관시키는 것은 중등 학습자들에게 문학 작품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타당하게 해석하는 데 필수적인 활동 중 하나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른 문학 작품, 특히 언어 자체가 어려운 고전 작품을 읽으면서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눈을 기르게 되는 것이다. 김시습의 생애에 대해 교수 · 학습하여 이를 학습 활동으로 구성하는 것은 고전 문학 작품의 해석 능력 함양을 위한 하나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김시습의 생애 전반을 교수 · 학습하는 것은 국어과 수업의 본시 학습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국어과에서 대단원 한 단원의 학습은 6-8차시로 이루어진다. 고등학교 수업을 기준으로 한 차시는 50분이다. 300분-400분 안에 김시습의 문학작품 외에 생애까지 교수 · 학습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22)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5쪽

김시습의 생애와 『금오신화』의 문학적 의의를 미리 예·복습할 수 있도록 일종의 보충학습활동으로 구성하였다. 이 활동은 학습자들의 문학 포트폴리오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포트폴리오는 문학 활동 모음집의 일종으로 교사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의 양상과 발전 과정, 성실도 등을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포트폴리오는 학생이 자신의 언어 수행 과정이나 결과를 기록한 것, 혹은 동료의 언어 수행에 대하여 항목별로 기록한 것을 평가의 대상으로 삼는 문항을 의미한다. 평소에 이루어지는 언어활동의 과정이나 결과물을 수시로 기록하여 모음집을 작성하게 한 후 평가할 수도 있다. 포트폴리오는 표현의 원리나 표현 방법 등 보다는 항목별 내용에 대한 충실도를 중시한다.<sup>23)</sup>

본 고에서 제시하는 활동은 3절에서 제시하는 본시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수행평가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수행평가는 수업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평가로, 학교 현장에서는 독서 감상문 쓰기 등의 활동을 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포트폴리오 활동을 수행평가로 제시하게 되면 학습자들은 정규 수업 시간 외에 스스로 자료를 읽으며 문항을 작성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생산론으로 연구하는 데는 주로 생애를 나열하는 방법이나 여러 문학 작품을 통하여 연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본고에서는 『금오신화』를 작가론의 입장에서 교수-학습하는 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는 바,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작가 김시습의 생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금오신화』의 내용과 언어 구사 방법, 문학적 형상화에 대해 이해하기 위하여 여타 작품 이외에 김시습이 직접 쓴 서신인 「상유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를 통해 그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상유양양진정서(上柳襄陽陳情書)」는 김시습이

---

23)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2014, 사회평론아카데미, 129쪽.

말년에 관동 지방에서 은거하여 있을 때 교유한양양부사 유자한에게 보낸 편지이다. 여기에서 자신의 과거 내력부터 현재의 일들, 그리고 자신이 다른 문인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서 논하였다. 이 편지는 김시습이 생각하는 자신의 모습과 사상히 온전히 드러나 있어서 『금오신화』를 이해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금오신화』를 교수하는 데 있어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면모를 잘 가르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해 이를 중요한 시기별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

포트폴리오 활동은 1과 2로 나누어 제시하였으며 그 이유는 수업의 전과 후에 생산론적 관점에서 고전문학 작품을 학습하는 방법을 내면화하기 위해서이다. 학생들은 수업 전에 수행평가로 <포트폴리오1-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 깊이 알기>를 하고 수업에 임하여야 한다. 수업에서 김시습과 「이생규장전」의 내용을 다루면서 <포트폴리오2- 『금오신화』 알아보기>를 제시하고, 실제 수행은 수업이 끝난 후 복습으로 이루어진다.

#### <포트폴리오1>

#####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 깊이 알기

『금오신화』의 작가인 김시습은 어릴적 매우 촉망받는 ‘신동’이었다. 그러나 그는 청년시절에 방랑을 시작하여 평생 벼슬이나 나랏일에 마음 두지 않고 떠돌아다닌다. 『금오신화』 다섯 작품에는 그러한 그의 평생에 걸친 고민이 잘 나타나 있다. 『금오신화』 다섯 작품 중에서 특히 「이생규장전」은 소설의 구조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이생규장전」의 학습에는 김시습의 생애와 사상, 그의 행적을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 1) 수학기의 김시습

“봄비가 새 장막에 내려 새 기운이 열렸도다[春雨新幕氣運開]”

김시습이 세 살에 지은 한 구절의 시이다. 외할아버지께서 봄 춘(春)자를 말씀하시자 김시습은 위와 같은 문장을 읊었다고 한다. 어린 김시습이 초가 집에 앉아 가랑비가 내리는 뜰에서 갓 피어난 살구꽃을 보며 ‘새 기운이 열렸다’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뛰어난 그를 ‘오세(五歲)동자라고 불렀다고 한다.

김시습은 외할아버지의 권유로 다섯 살 때부터 당대의 훌륭한 학자들에게 성리학과 문학에 대하여 배우게 된다. 그의 이름은 경복궁의 세종대왕에게 까지 알려지게 된다. 세종은 신하를 시켜서 김시습의 재능을 시험하였고 김시습의 천재성에 감탄하였다.

질문) 김시습의 문학적 천재성을 뜻하는 한 단어를 찾아 말해봅시다.

예시 답안) 오세

1453년(단종 1년) 10월 10일에 수양대군은 아버지 세종의 대신들이었던 좌의정 김종서, 영의정 황보인, 이조판서 민신, 병조판서 조극관 등을 죽이고 동생인 안평대군 이용(李瑢, 1418~1453)과 그 아들을 강화도 교동으로 쫓아냈다. 이를 계유정난(癸酉靖難)이라고 한다. 결국 1455년 윤6월 11일, 단종은 위협에 못 이겨 숙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었다. 김시습은 서울에서 온 사람에게서 단종이 왕위를 넘긴 사실을 전해 듣고는 깜짝 놀랐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사흘 동안 바깥에 나가지 않았다.

이제까지 그는 당대 최고의 학자들을 스승으로 모시고 군자로서의 덕 함양과 도덕적 실천을 존중하는 유학의 사상을 익혔으며, 어질고 의로운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정치철학을 철석같이 믿어왔다. 그러나 세조가 왕위를

빼앗은 사건은 김시습이 가진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엎고 말았다.

1456년(세조 2) 6월에는 성삼문, 박팽년, 이개, 하위지, 유성원, 유응부 등 여섯 신하가 단종이 다시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일을 꾸미다가 들켜 사형당하였다. 김시습은 이 여섯 신하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공주의 동학사라는 절에 있다가 한성, 지금의 서울로 달려갔다. 그는 그곳에 나아가, 그들의 절의 있는 행동을 지켜보았다.<sup>24)</sup> 함께 공부했던 오랜 친구들인 여섯 신하가 죽어버리고만 것이다.

질문) 김시습은 올바른 정치에 대하여 꿈꾸고 있던 시기에 세상이 자신이 꿈꾸던 가치와 어긋나게 되는 일을 겪고 실의에 빠져서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미쳤다고 말합니다. 내가 김시습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을지 이야기해 봅시다.

(학습자들이 김시습의 시대와는 다른 사회 · 문화적 맥락을 살아가므로 김시습의 상황에 공감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넌 왜 그런 것을 좋아하니, 미쳤니?’라고 말한다면 어떨까요?’와 같은 예시를 통해 부연 설명한다.)

답안) 김시습은 계유정난이 일어난 뒤 어질고 의롭게 사람을 다스리는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큰 혼란을 겪었다. 다른 사람은 그가 미쳐서 소와 말 같다고 말하였다. 이 때 김시습은 자신의 생각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매우 외로웠을 것 같다. 만일 내가 김시습과 같이 내가 생각하고 믿고 있던 것들이 흔들린다면 부모님이나 좋아하는 친구에게 가서 막 울고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혼자 자전거를 타고 여행을 떠나거나 방문을 잠그고 좋아하는

노래를 들었을 것 같다. 매우 힘든 일이다.

## 2) 방랑기의 김시습

김시습은 ‘계유정난’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랑의 길을 떠나게 된다. 그는 지금까지 하던 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가 없었다. 분노가 일어나 그 고통을 잊기 위하여 승려의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이처럼 서울의 벼슬길이나 지방의 귀족으로서 유학에 힘쓰지 않은 이들을 ‘방외인(方外人)’이라고 한다. 방외인이란 체제 밖의 인물이다.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던 말이다. 방외인은 지체에 결함이 있는 말단 사대부 또는 그 이하 신분이어서 진출을 바랄 수 없으며, 자기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반발을 촉진하기까지 해서 방랑과 비판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였다. 방외인들은 공인된 규범을 거부하고 반발을 나타내는 문학을 하였다. 그러나 활동 범위가 넓지는 않았다.<sup>25)</sup>

질문) 방외인이란 어떤 뜻인지 말해 봅시다.

예시 답) 방외인은 지배체제 안에서 주어진 위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반발을 보이며 이념적으로도 이단을 택하는 사람들을 지칭하기 위해서 쓰던 말이다. 방외인은 지체에 결함이 있는 말단 사대부 또는 그 이하 신분이어서 진출을 바랄 수 없으며, 자기 재능에 대한 자부심이 반발을 촉진하기까지 해서 방랑과 비판으로 일생을 보내는 것이 예사였다. 방외인들은 공인된 규범을 거부하고 반발을 나타내는 문학을 하였다.

질문) 김시습은 지금 우리의 나이와 같은 10대에서 20대에 그의 기준에 있어서 정의롭지 못한 것을 접하고 방랑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의 우리를 생각해 볼 때, 스스로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 봅시다.

(학습자들의 삶과 김시습의 작가론을 연관시키기 위한 질문이다. 정의, 사랑과 같은 가치 뿐 아니라 부모님, 친구와 같은 사람이나 좋아하는 연예인도 지키고 싶은 무언가가 될 수 있음을 예시로 든다.)

예시 답) 사회 시간에 세금에 대해 배운 적이 있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이 바른 곳에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 오빠가 의경으로 군대를 가서 정부청사에서 근무하면서 늘 보는 것이 높은 공무원들이 세금을 그냥 가져가는 것이라고 한다. 차관 바로 아래의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 같은 사람들이 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사무실에서 자고 야근 수당을 매우 많이 받아간다고 하였다. 나는 국민의 의무를 지키지만 권리도 보장받고 싶다. 그래서 친구들과 건의를 할까 생각해 보았지만 욕만 먹을 것 같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화가 난다.

방외인 문학의 특징은 자신의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공허한 마음을 문학적으로 그려낸 것에 있다. 김시습은 이러한 공허함을 자신이 방랑하면서 겪고 본 것들로 『금오신화』에 표현하였다.

특히 관서(북한 평안도)와 관동(강원도), 호남(전라도)지방 등 전국을 유람을 하며 지난 왕조의 흥망성쇠를 보고 느꼈다. 경상도는 신라의 옛 터이고, 전라도는 백제의 옛 터이다. 관서 지방은 고조선과 고구려가 있었으며 고려가 번창했던 곳이다.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은 전라도 남원, 백제의 옛 도시이고 「이생규장전」과 「용궁부연록」의 시작 배경은 고려의 도읍지인 송도, 지금의 경기도 개성이다. 또한 「취유부벽정기」는 고조선의 도읍지

인 평양을 배경으로 한다. 김시습이 『금오신화』의 배경을 전에는 번성하였으나 지금은 자취만 남은 옛 도움으로 설정한 것은 소설의 쓸쓸함의 정서를 확장한다.

질문) 김시습은 『금오신화』의 쓸쓸함의 정서를 위하여 과거에 번성했던 도시로 시공간 설정을 하였습니다. 제시한 부분을 찾아 읽고, 다음을 표시해 봅시다.

-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에서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는 조강(경기도 개풍군(開豐郡) 덕수(德水) 남쪽의 임진강 근처의 나루) 신, 낙하(경기도 파주시의 탄현면 북쪽 임진강변에 위치한 나루터)의 신, 벽란(황해남도 배천군 문산리의 동북쪽에 있는 나루터)의 신은 김시습이 실제 낙하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소설 작품에는 작가의 ○○이 반영되어 있다.

- 「취유부벽정기」의 배경은 평양, 「이생규장전」과 「용궁부연록」은 개성,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은 남원이다. 이것은 각각 ○○○, ○○, ○○의 옛 도시들이다. 이를 통해 김시습은 ○○○의 정서를 ○○시키고 있다. (본 활동은 학습자들이 올바른 답안을 넣는 것보다 학습 내용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학습자들이 『금오신화』를 읽을 때, 위와 같은 시공간의 의미, 배경간의 의미를 떠올릴 수 있도록 반복하여 관련 개념을 제시하는 것이다.)

예시 답) 『금오신화』의 「용궁부연록」에서 용궁의 잔치에 참석하는 조강의 신, 낙하의 신, 벽란의 신은 김시습이 방랑을 하며 실제 낙하에 가서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구성한 것이다. 이처럼 소설 작품에는 작가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취유부벽정기」의 배경은 평양, 「이생규장전」과 「용궁부연록」은 개

성, 「만복사저포기」의 배경은 남원이다. 이것은 각 각 고조선, 고려, 백제의 옛 도시들이다. 이를 통해 김시습은 쓸쓸함의 정서를 확장시키고 있다.

### 3) 금오산 은거기의 김시습

1462년 28세의 김시습은 방랑을 끝내고 지금의 경주 남산, 즉 금오산에 자리를 잡기로 결심한다. 그는 금오산 중턱의 용장사에서 경실, 작은 방을 하나 얻어 거처하면서 매화를 심고 금오산 근처 경주의 여러 곳을 구경 다니며 사색하곤 하였다. 또한 근처에 사는 선비들을 만나 놀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신과 어긋나는 세상을 떠올리며 때때로 괴로워하기도 하였다.

김시습은 자신이 보고 체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철학을 구현한 소설을 쓰게 된다. 이것이 바로 『금오신화』이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지만 1465~1468년(31~37세) 무렵으로 추측한다.

『금오신화』를 엮은 뒤에 김시습은 시 두 수를 적었다. 『금오신화』 목판본에 「갑집의 뒤에 쓴다(書甲集後)」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는 시이다.

낮은 집 푸른 담요에 온기가 남은 때	矮屋青氈暖有餘
들창에 매화 그림자 가득하고 달이 밝아라.	滿窓梅影月明初
긴긴 밤 등 심지 돋우며 향 피우고 앉아서	挑燈永夜焚香坐
세상에 없던 책을 한가하게 저술하노라.	閑著人間不見書

옥당(玉堂)에서 붓 놀릴 마음 없기에	玉堂揮翰已無心
깊은 밤 소나무 비긴 창 아래 정좌하였다.	端坐松窓夜正深
차관과 동평, 오등 팔걸이뿐인 정갈한 방에서	香插銅几烏几淨
글귀 찾아 풍류기화를 적어본다.	風流奇話細搜尋

\*차관 : 찻물을 끓이는 그릇. 모양이 주전자와 비슷하다.

\*동평: 단지(목이 짧고 배가 부른 작은 항아리)

혹은 시루(떡이나 쌀 따위를 찌는 데 쓰는 둥근 질그릇)

\*오등 : 지팡이

김시습은 자신의 소설을 ‘풍류기화(風流奇話)’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세상에 없던 책’이라고도 한다. ‘풍류기화’는 세상을 즐기는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한다. 즉, 기이한 이야기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귀신과 인간이 교류하고, 용궁과 염라대왕(염부주)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러나 흥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풍류기화’이다.<sup>26)</sup>

그는 옥당에서 글을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였다. 옥당이란 왕조의 사업을 꾸미는 문학 담당 기관을 두루 가리키는 말이다. 김시습은 옥당이 아니라 깊은 밤 소나무가 보이는 조출하지만 정갈한 방 안에서 글을 썼다. 그는 서민들의 이야기나 설화 등 기이하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제로 삼았다.<sup>27)</sup>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창작하기 이전에, 중국의 ‘풍류기화’인 『전등신화(剪燈新話)』를 읽었다. 『전등신화』는 중국의 ‘전기소설’로 기이한 이야기 속에 사람들의 관계나 삶의 방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소설이다. 『금오신화』의 창작에 이 『전등신화』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할 수 있다. 김시습은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세상을 ‘교화’하기만 하면 훌륭한 것이라 보았다. 뿐만 아니라, 감동된다는 것은 진실에서 나온 것인데, 허황된 이야기를 통해서도 진실을 표현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배척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겉에 나타나는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주제, 문학적 진실성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이

다.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창작할 때, 새로운 글에 교훈과 감동을 실으려고 의도하였다.

오늘날은 문학의 심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고 있다. 문학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정서에 공감하게 한다. 그리고 무언가 깨닫게 하여 교훈을 준다. 김시습에게서 이러한 오늘날의 문학관을 엿볼 수 있다.<sup>28)</sup>

질문) 김시습은 자신이 보고 겪은 체험을 모두 『금오신화』에 넣었습니다. 『금오신화』를 읽기에 앞서 김시습에 대해 학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해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방랑하면서 겪은 것들을 『금오신화』에 담았다. 그냥 읽을 때는 잘 모르거나 어려운 부분이 김시습의 행적이나 생각을 공부하게 되면, 그 내용이 왜 그런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금오신화』의 주제를 이해하는데 김시습이 방랑하게 된 이유나 방랑하면서 겪고 생각한 일들이 중요하다. 김시습이 본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계유정난’이라는 사건이 『금오신화』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기 때문이다.

질문) ‘풍류기화(風流奇話)’의 뜻을 찾아보고, 김시습이 자신의 문학작품을 왜 풍류기화라고 하였는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예시 답) ‘풍류기화’는 세상을 즐기는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기이한 이야기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간 세상에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다. 귀신과 인간이 교류하고, 용궁과 열라대왕(염부주)가 등장하는 이야기, 그러나 흥미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뜻한다.

『금오신화』에서는 인간과 귀신이 대화하고 사랑을 나누고, 열라대왕을

만나서 이야기하고 용궁의 잔치에 초대받는 등의 내용이 나온다. 이것은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이야기이다. 그렇지만 흥미로운 소재이다. 그래서 자신의 소설을 ‘풍류기화’라고 하였다.

질문) 김시습의 문학관과 그것이 갖는 의미를 찾아 말해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아무리 기이한 이야기라 할지라도 세상을 교화할 수 있으면 훌륭한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아무리 허무맹랑한 이야기라 하더라도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으면 좋은 것이라고 하였다. 허황된 이야기라도 감동을 주고 진실을 전달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라고 한 것이다. 이것은 이야기의 형식보다 내용, 주제를 중시한 것이다.

예전에는 문학이 고상하고 철학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날 문학은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그 정서에 공감하게 한다. 그리고 무언가 깨닫게 하여 교훈을 준다. 이를 문학의 심리적 기능과 교육적 기능이라고 한다. 김시습에게서 이러한 오늘날의 문학관이 나타난다.

이상으로 <포트폴리오1- 『금오신화』의 작가 김시습 깊이 알기>는 본시 수업 전에 수행평가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본격적으로 「이생규장전」을 읽기 전에 작가인 김시습의 생애와 그가 소설에 어떤 점을 구현하고자 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뒤에 「이생규장전」을 읽고 수업을 하게 되면 ‘만남-헤어짐-만남-헤어짐의 구조’, ‘절의 형상화’ 등의 단편적인 지식을 소설의 맥락과 연관시키며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24) 심경호, 위의 책, 「제 2부 방랑의 길」, 125-133을 중등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맞게 재구성.

25)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413-414쪽.

26) 유육자, 「『금오신화』 현장 교육적 연구」, 인천대학교, 2000, 12쪽.

27) 심경호, 위의 책, 「제 3부 금오산의 은둔」, 224-225, 236-240, 250-252쪽.

28) 유육자, 위의 책, 2000, 13-14쪽.

본시 수업 이후에는 <포트폴리오1>과 수업에서 학습한 「이생규장전」의 내용을 정리하고 심화·학습하기 위하여 『금오신화』의 역사적 의의와 갈래의 특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활동을 한다. <포트폴리오2- 『금오신화』 알아보기>를 통하여 생산론적으로 고전문학을 학습하는 활동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것이다.

### 『금오신화』 알아보기

#### 1) 전기소설

김시습이 쓴 『금오신화』는 전기소설(傳奇小說)이며 이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발달하기 시작한 소설의 한 양식이다. 전기(傳奇)는 이순신 전기(傳記)의 ‘전기’와는 다르다. 이는 ‘기이한 것을 전한다’는 뜻으로, 이는 기이한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허구적 이야기, 환상적 이야기를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전기성은 인간과 귀신의 만남이나 이 세상 인물이 아닌 것들과의 교류로 대표되는 ‘환상성’·‘초현실성’ 그리고 ‘낭만성’이 특징이다.<sup>29)</sup>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처럼 이야기를 창조적으로 재구성하거나 창작하는 문학 전통이 일찍부터 있었다. 각 지역의 설화와 그것을 문헌으로 기록한 서사기록물이 존재하였고, 설화 모음집인 신라 『수이전(殊異傳)』과 『삼국유사』의 일부 이야기처럼 허구적 창작물이 발달하였다.<sup>30)</sup>

질문) 전기소설의 특징 세 가지를 찾고, 전기소설이 무엇인지 한 줄로 말해봅시다.

예시 답) 전기소설의 특징은 환상성, 초현실성, 낭만성이다. 그리고 전기소설은 기이한 이야기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하거나 허구적 이야기, 환상적 이

야기를 창작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오신화』가 가지는 소설적 특징과 설화의 비교

『금오신화』의 다섯 작품이 가지는 전기소설적 특징과 설화의 특징을 비교해 보면 소설작품으로서 『금오신화』가 가지는 의의를 잘 알 수 있다.

	전기소설	설화
인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외면 뿐 아니라 내면의 감정, 생각까지 서술하여 인물의 개성을 ‘안팎’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함</li> <li>• 인물들이 ‘시(詩)나 편지’를 주고받으며 읽는 행위를 통하여 등장인물의 내면세계를 드러내고 일어날 일을 나타냄.</li> <li>• 섬세하고 내면적이며 고독한 성격의 인물이 주로 등장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의 외면(행위)만 서술</li> <li>• 설화에 등장하는 인간은 고독하지도, 내면을 보여 주는 일도 없음</li> <li>• 등장인물의 고민이나 추구하는 바, 생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으며 ‘누군가 죽이려 해서 도망간다’, ‘나라를 세웠다’, ‘중의 말을 듣고 산으로 올라갔다.’등 행위만 서술됨</li> </ul>
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이 놓인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서술</li> <li>예) 송도의 낙타교 아래 홍건적의 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상적 시·공간적 환경 서술</li> <li>예)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li> </ul>
사회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물과 환경의 깊은 연관으로,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냄.</li> <li>예) 쓸쓸한 분위기를 형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않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정적인 사회적·현실적 반영으로 인해 인물이 고독감을 나타냄</li> </ul>	
문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위기를 중시하고 화려한 수식이 많은 문어체의 한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어체</li> </ul>

질문) 설화와 달리 『금오신화』가 가지는 중요한 특징을 두 가지 이상 말해 봅시다.

예시 답) 『금오신화』는 설화와 달리 인물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인물의 심리를 시나 편지를 통해 드러낸다. 또한 인물이 놓인 시간적·공간적 환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환경에 대한 묘사는 인물의 성격과 특징을 드러낸다.

### 3)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는 특징

#### ① 고독감

등장인물 대부분 짝을 원하면서도 짝을 얻지 못하고 있거나 인정받지 못해 세상을 떠도는 인간이다. 이처럼 외로운 존재이기에 적당한 대상을 만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쉽게 그 대상에게 바치게 된다.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스스로의 선택과, 혹은 순간적인 교감에 의해 서로 사랑하게 되기에, 그 애정은 지고지순하거나 돈독하다. 그리하여 그 둘 사이에 제3자가 개입하여 삼각관계를 벌이거나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로 '일부 일처'를 보여준다. 그러나 대부분 그들의 사랑은 여러 현실적 장애에 의해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 게 보통이다.

## ② 내면성

외로운 전기소설의 등장인물은 적합한 대상을 만나면 당장 자신의 깊은 '속'을 상대에게 드러내 보여준다. 이때 이용되는 독특한 장치가 시(詩) 혹은 편지이다. 전기적 인간은 처음 사랑할 대상을 만났을 때 종종 여러 편의 시를 주고받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연애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이는 강한 '문학적 취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전기소설의 남녀 주인공은 이러한 문학적 취향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다.<sup>31)</sup>

## ③ 비극적 결말

전기소설의 등장인물은 애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고 죽거나 삶이 허무함을 깨닫게 되는 등 비극적 결말을 맞이한다. 이는 당대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비극적 인식을 바탕으로 전기소설을 서술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기소설의 주제의식은 복잡하고 다양할 수 있으며, 세계관이 서로 어긋나는 것을 드러내기도 한다.

## ④ 충동성

전기적 인간은 다정다감하고 감상적일 뿐 아니라, 충동적인 면모를 곧잘 보여준다. 특히 사랑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연애의 대상을 만나면 맹목적으로 그 대상을 향해 달려간다. 그들은 이러한 충동성으로 인해 당시의 관습이나 제도, 윤리를 벗어나게 된다. 그러기에 전기소설의 주인공들은 애정 문제로 인해 부모와 종종 갈등을 빚게 되며, '효'(孝)보다는 '애정'을 훨씬 더 중시하는 것을 보여준다.<sup>32)</sup>

질문)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가지는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시 답) 고독감, 내면성, 비극적 결말, 충동성

#### 4) 『금오신화』의 내용과 형식적 특징

문어체 문장과 시를 통해 대상을 서정적으로 표현하고 등장인물의 심리, 사건 전개와 암시, 인물과 사건에 대한 작가의 평가를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남염부주지」는 예외이지만, 다른 네 작품은 모두 시를 이용하여 배경과 사건의 흐름을 묘사·서술·암시하였으며, 극적 긴장을 높이고 있다. 「만복사저포기」에서 여러 여인들의 심리를 각기 다른 시의 방법으로 표현한 것은 매우 훌륭한 문학적 표현이다.<sup>33)</sup>

『금오신화』의 인물들 역시 우리나라에 전해지던 ‘열녀설화(烈女說話)’에서 가져 온 부분이 많다. 「만복사저포기」나 「이생규장전」의 여주인공은 모두 고려 말 왜구, 지금의 일본 혹은 원나라 말 흥건적의 침입 때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여인들이다. 「취유부벽정기」의 여주인공 기씨녀 역시 죽음으로서 절개를 지키려고 하였다. 이처럼 김시습은 『금오신화』에 당대에 전해지던 열녀 이야기로부터 인물의 모델을 삼아 이야기를 구성하였다. 그래서 「이생규장전」 등은 개성적이고 생기에 가득 찬 여주인공을 창조해낼 수 있었다. 작가 김시습은 이를 통해 자신이 지키고 싶은 가치였던 ‘절의’를 소설의 주제로 드러내고 있다.<sup>34)</sup>

질문) 『금오신화』에서 등장인물의 심리를 드러내고 사건을 암시하는 역할을 하는 장치는 무엇인지 말해봅시다.

예시 답) 시

질문) 김시습이 자신의 가치관인 절의를 드러내기 위해 어떻게 여주인공을 설정하였는지 말해봅시다.

예시 답) 우리나라에 있던 열녀설화를 가져와 죽음으로써 절개를 지킨 여

인들로 여주인공을 설정하였다.

#### 5) 『금오신화』의 주제

『금오신화』는 표면적으로는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의리와 절개라는 문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수양대군이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상황에서 세종대왕 때 집현전에서 연구하던 신숙주와 같은 문인들이 변심을 하여 이익을 추구하였다. 이러한 정의로운 가치에 어긋나는 현실을 김시습은 전기소설인 『금오신화』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바꿀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을 넘어선 존재를 만나거나 죽음으로써 해결을 보고자 하는 것이다.

『금오신화』에서는 주인공의 주체적 행동이 강조되고 있다. 『금오신화』의 주인공들은 운명을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남을 따르는 존재는 아니다. 스스로의 의지에 따라 결단을 내리고,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점이 뚜렷한 인간이다. 인물이 세상을 벗어나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것이나,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 역시 주체적 행동이다.<sup>35)</sup>

질문)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자신의 주장을 비유적으로 말하기 창작한 『금오신화』가 비현실적인 이유를 말해 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세조가 어린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어긋난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를 말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소설을 창작하였다. 현실을 바꿀 수 없으므로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인물을 만나거나 죽어서 이 세상을 초월해야 그런 정의롭지 못한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질문) 만일 내가 김시습과 비슷한 상황이라면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현실

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말해 봅시다.

예시 답) 나라면 외국에 나가 외국어로 나의 가치와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 말하거나 글을 쓸 것 같다.

앞서 제시한 포트폴리오 활동은 기존의 참고 보충 활동지에 비하여 김시습과 그의 작품인 『금오신화』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금오신화』의 각 작품의 구조나 특징보다 김시습이라는 작가의 사상과 그의 작품의 연관성에 중점을 두었다. 그 중에서도 중등 학습자들에게 비교적 가장 적합한 내용과 구조라고 할 수 있고 기존의 교과서에서 많이 다루는 「이생규장전」을 생산론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할 수 있다. 단순하게 소설의 구조와 성격에 대한 지식을 단편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작가와 작품이라는 작품 내·외적 요소의 심도 있는 고찰을 통해 고전문학 작품의 생산론적 접근 방법에 대해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지식을 기를 수 있다.

위 활동은 학습자들의 개인 수행평가와 같은 개인 활동 과제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보통 소단원 하나를 학습하는 데 걸리는 단위 학교 학습 차시는 2차시이다. 2차시, 즉 100분 안에 위 활동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김시습의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의 교수·학습 이 전과 이후에서 각 각 문학 수행평가의 일부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은 「이생규장전」 뿐 아니라 학습자들이 다른 문학작품을 생산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도 있다.

29)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돌베개, 1997, 15-16을 학습자의 인지 수준에 맞게 재구성.

30) 김시습 저/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52쪽 각주 참조.

31) 박희병, 위의 책, 35-40쪽.

32) 박희병, 위의 책, 40-52쪽.

33) 김시습 저/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41-43쪽.

34) 박희병, 위의 책, 176쪽.

35) 박희병, 위의 책, 210쪽.

### 3. 「이생규장전」의 본시 교수 · 학습안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금오신화』 중 「이생규장전」을 선택하여 교수하고 있다. 이는 「이생규장전」이 등장인물의 애정과 만남, 헤어짐의 구조가 치밀하고 주제가 선명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이생규장전」은 2차시로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1차시는 작품을 읽고 어려운 단어를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이생규장전」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 부족한 단원 구성이라고 판단하였다. 일반적으로 대단원 하나는 6-8차시로 진행된다. 본 고에서는 위 차시 형식에 맞추어 「이생규장전」을 하나의 소단원으로 설정하고, 2차시로 구성하였다.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함에 앞서 선택한 성취기준을 분석하였다. 성취기준 하나로 전체 대단원을 구성하여 그 응집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 대단원과 소단원, 각 차시목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수-학습 지도안에서 선택한 차시 외의 내용 구성은 본 고의 논의에서 벗어나므로 생략하고 본 고에서 선택한 「이생규장전」의 교수 내용과 관련된 내용만 서술하였다. 또한 교수 · 학습의 배경지식이 되는 내용은 포트폴리오 형식의 학습활동으로 제안하였다. 이는 교수 · 학습의 목표 학습을 위한 배경지식이 되는 부분이나 교수 · 학습 시간인 50분 안에 다루기에는 인지적 부담이 있다. 또한 「이생규장전」의 제재학습이나 문학사적 지식에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목표 달성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내용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의 이해를 돕기 위한 포트폴리오는 학습자들의 전반적인 고전문학 학습을 위한 일종의 비계로, 가정 학습이나 방과 후 학습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 1) 성취기준 분석

본고에서 선택한 고등학교 「국어 I」의 성취기준과 그 해설은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15)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 작가는 작품을 통하여 인간과 세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다. 따라서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이나 형상화 방법에서도 작가만의 독특한 개성이 나타난다.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여 작가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하며, 나아가 이를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위 성취기준에서 지식은 ‘작품을 읽고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여 작가 개인의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한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작가의 개성이란, ‘작가의 고유한 생각과 취향, 가치관, 언어를 구사하는 방법, 형상화 방법’을 말한다. 수용과 생산(기능) 영역은 ‘학습자 자신의 개성과 비교하여 자신의 문학 활동을 보다 풍요롭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이다. 본 고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2) 교수 · 학습 과정 설계를 위한 요인 분석

생산론적 관점에서 교수 · 학습 과정안을 설계함에 앞서서 교수 · 학습을 구성하는 요소인 교수자, 학습자, 수업을 대상으로 이들을 분석하였다.

### (1) 교수자

국어 교사는 학습자들의 국어 능력의 함양을 돕는 역할을 한다. 국어 능력이란 적절한 상황과 맥락에 맞게 읽고 쓸 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어 지식 영역과 공감이나 문화 형성과 같은 태도, 듣고 말하고 읽고 쓸 줄 아는 기

능 영역의 통합적 교육을 통해 국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국어 능력의 함양을 위해서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필요한 국어 지식을 전달하고 이를 적용하는 연습 활동을 구성해야 한다. 필요한 국어 지식이란 사회생활에서 자주 쓰일 수 있는 국어 지식을 말한다. 예를 들면 협상, 높임법 등이다. 이를 통해 국어 교사는 학습자들이 교양 있는 사회인이 되어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사회생활에서의 언어사용과 관련이 없다고 보일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판단이다. 문학 영역을 통해 공감 능력과 가치 판단 능력을 기를 수 있으며, 이는 사회 속에서 타인에게 공감하는 능력과 어떤 사건의 가치를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을 결정하는 데 필수적인 능력이다.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문학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필요하다. 문학을 통해 학습자들은 다양한 가치를 접하고 여러 경험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

문학 영역에서 학습자들은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 작가는 문학 작품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구현한다. 학습자들은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한 작가의 생각이 구현된 작품에서 자신의 고민이나 관점의 폭, 시야를 넓힐 수 있다. 작가는 많은 고민 끝에 자신이 드러내고자 하는 주제를 작품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형상화한다. 이는 학습자들이 자신의 고민이나 가치관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이 된다. 교수자는 이러한 가치관의 형성과 관점의 폭의 확장을 도와야 한다.

문학 교육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학습자들의 문학적 체험이다. 개인의 문학적 체험을 다른 학습자들, 그리고 교사와 함께 공유하며 이해와 해석의 지평을 넓혀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학습자들은 문학적 체험을 통해 타인에게 공감할 수 있고, 타당성 있는 해석의 방법을 익히게 된다. 학습자 중심 활동을

통해 이러한 문학적 체험을 확장할 수 있다.

문학 교수 · 학습 상황에서 어려운 점은 학습자 중심 활동이다. 보통 한 모둠에는 문학 독서 활동 경험이 많은 학습자들과 적은 학습자들이 함께 섞여있다. 이 때 학습자들의 인지 수준을 적절히 조절하고, 상호 보완할 수 있는 학습 분위기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 학습자들의 자유로운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이다. 모둠 활동 뿐 아니라 교사 주도의 활동에서도 발표와 같은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작용 유도에도 어려움이 있다. 문법이나 언어 사용 영역과 달리 문학 영역에서 문학적 체험과 관련된 발표 혹은 질문에는 정확한 답이 없기 때문에 맞고 틀리고를 논함에 있어 신중해야 한다. 문학 영역에서는 정답은 없으나 적절한 혹은 타당한 답안군은 존재한다. 학습자가 타당한 답을 말하지 않을 경우, 다른 측면에서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피드백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가 자신감을 잃지 않도록 격려해 주어야 한다. 타당한 답안의 유도를 위해서는 교사의 발문 혹은 질문 또한 적절하고 타당해야 한다. 적절한 행위동사를 사용한 목표 진술 혹은 발문 진술에도 교수자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분석 하에 본 교수 · 학습 계획을 작품의 이해를 돕는 작가의 생애와 가치관이 나타난 자료를 제시하고, 작품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통해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는 활동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이 때 학습자들이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습자 주도의 활동을 통해 교사가 설명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때 모둠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교수자의 역할을 중요하게 설정하려 한다. 교사의 적절하고 구체적인 발문의 설정 역시 본 교수 · 학습 계획에서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다.

## (2) 학습자

대상이 되는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은 자아를 형성하는 시기이다.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대학 입시 등과 관련된 고민이 심화된다. 즉, 자신의 미래와 꿈,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한 고민이 심화되는 것이다. 학습자들은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작가의 고민을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하였는지 학습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가치관의 형성이라는 정의적 영역을 학습할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부터 국어 영역에서 고전 문학에 대한 학습이 심화된다. 작가론적 입장에서 고전 문학을 학습하는 것은 고전 문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울 수 있고, 국립 공통 기본 교육기간에 학습한 성취기준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 (3) 수업 모형

본고의 교수 · 학습 과정안은 문제 해결 학습 모형과 직접 교수법에서 일부 단계를 선정하여 복합적으로 적용한다.<sup>36)</sup>

### ① 문제 해결 학습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은 교사나 친구들과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를 확인하고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일반화하는 활동을 강조한다. 이 모형은 최대한 학습자 스스로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자발적인 학습 참여를 유도하고 학습자의 탐구력을 신장시키는

---

36) 수업 모형에 대한 설명은 최미숙 외, 『국어 교육의 이해』, 「제 4장 국어과 교수 · 학습 방법 및 수업 방법」, 사회평론, 92-96, 2012를 참조하였다.

데 유리하다. 학습자는 문제 해결 과정에서 지식이나 개념을 단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학습에 대한 책임감도 갖게 된다.

문제 해결 학습 모형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절차	주요 학습 활동의 예
문제 확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진단 및 확인</li> <li>• 문제 요인 분석</li> </ul>
해결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에 동원되는 지식(전략)</li> <li>• 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 절차 확인</li> </ul>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탐구한 문제 해결 방법을 바탕으로 문제 해결</li> <li>• 새로운 원리 터득/기존 원리 재구성</li> <li>• 전략 습득 여부 확인</li> </ul>
일반화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제 해결의 과정 되돌아보기</li> <li>• 터득한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li> <li>• 적용상의 문제점 추출 및 대안 제시</li> </ul>

## ② 직접 교수법

직접 교수법은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국어의 사용 기능(전략)을 효율적으로 습득하게 하는 데 유용한 수업 모형이다. 전략의 원리를 설명하고, 시범해 보이고, 질문해 가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연습하여 활동해 봄으로써 배운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 교사 중심의 교수·학습 모형으로써, 국어 사용 영역 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지식을 직접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직접 교수법의 일반적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과정	주요 활동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에 대한 동기 유발</li> <li>• 학습 내용 소개</li> <li>• 학습의 필요성과 중요성 인식</li> </ul>

시범 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 내용 적용의 실제 예시 제시</li> <li>• 학습 내용의 습득 방법이나 절차를 세부 단계별로 나누어 직접 시범 보이거나 매체를 활용하여 시범 보임</li> </ul>
질문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분화된 학습 내용 습득 방법이나 절차를 교사가 한 단계씩 학생들을 유도하며 과제 수행 도움</li> </ul>
활동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사의 개입을 최대한 자제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학습 내용 적용 연습</li> <li>• 학습 내용을 적용 가능한 실제 상황이나 다른 상황에 적용함으로써 학습 내용 내면화</li> </ul>

### ③ 수업 모형 적용 계획

본 교수 · 학습 과정안을 설계하면서 적용한 수업 모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복합 모형을 적용한 이유는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을 찾는 방법을 교수하기 위해서는 직접 교수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고, 학습자들이 직접 김시습의 개성을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위해서는 문제 해결 모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학습 과정	교수·학습 활동
설명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 김시습의 가치관에 대해 설명하기</li> <li>• 김시습의 주제, 인물 형상화 방법 설명하기</li> </ul>
시범 보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시습의 생각이 드러난 「이생규장전」의 표현 방법 찾기 시범 보이기</li> <li>• 김시습의 개성과 예술적 성취가 나타난 「이생규장전」의 주제 형상화 방법 찾기 시범 보이기</li> </ul>
해결 방법 찾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에 드러난 김시습의 고유한 가치관 찾아보기</li> <li>• 「이생규장전」의 주제 형상화 방식 찾아보기</li> </ul>
문제 해결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의 주제 형상화 방식 정리하기</li> <li>• 작가 김시습의 예술적 성취 정리하기</li> </ul>

### 3) 단원 구성

본 고에서 구성한 세부 단원 계획은 다음과 같다. 『금오신화』를 작가론적 관점에서 교수 · 학습하는 목적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특히, 성취기준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 시를 소단원 (1)의 제재로 선택하였다. 그러나 소단원 (1)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본 고의 논의와는 일관성이 떨어지고, 또 다른 논문의 주제가 될 수 있기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대단원명	1.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 감상하기	
대단원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작품에 나타난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한다.</li> </ul>	
소단원명	(1) 관점과 표현의 관계 (2) 가치관과 문학 형식의 관계	
소단원 목표	(1) 작가의 관점이 담긴 시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2) 작가의 가치관이 담긴 소설의 언어와 형상화 방식을 이해하고 감상한다.	
차시 목표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정주의 「추천사」를 읽고 작가의 언어 구사 방법과 주제 형상화 방법을 파악한다.</li> <li>• 「추천사」의 구성을 이해한다.</li> </ul>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천사」의 작가의 개성을 통해 그의 예술적 성취를 정리한다.</li> <li>• 자신의 개성을 담은 문학적 글을 쓴다.</li> </ul>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시습의 「이생규장전」을 읽고 작품의 구성을 파악한다.</li> </ul>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이해한다.</li> <li>• 작가의 개성을 통해 그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한다.</li> </ul>

4) 교수 · 학습 과정안

본고에서는 1차시의 작품 독서와 구성의 파악은 생략하고 2차시의 작품 해설 및 탐구를 중심으로 교수-학습 지도안을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수업일시		대 상	고등학교 1학년	지도교사	
대단원	1. 작가의 개성을 이해하고 작품을 감상하기	차 시	2/2	장 소	
소단원	(2) 가치관과 문학 형식의 관계				
학습목표	1. 「이생규장전」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파악한다. 2. 작가의 체험을 통한 개성을 통해 그 고유한 예술성을 이해한다.				
준비물	교과서, 포트폴리오 활동지				
학습단계	교수 - 학습 활동				시 간 (분 )
	교 사	학 생		자료 및 유의점	
도 입	전시 학습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생규장전」의 구성과 특징을 질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생규장전」의 구성과 특징에 대해 대답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주제: 이생과 최처녀의 비극적 사랑</li> <li>②만남-헤어짐-만남-헤어짐-만남-헤어짐의 치밀한 구조</li> <li>③홍건적의 난을 기준으로 사건 진행을</li> </u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과서에서 지난 시간에 학습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li> </ul>	5분

			나눌 수 있음 ④시의 역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드러냄, 일어날 일 암시, 낭만적 분위기 형성		
	학습 목표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칠판에 쓴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이생규장전」을 읽고 김시습의 주제 형상화 방식을 파악한다.</li> <li>2. 작가의 개성을 통해 그 고유한 예술적 성취를 이해한다.</li> </ol>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습목표를 따라 읽는다.</li> </ul>		2분
	동기 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 활동에서 느낀 김시습과 「이생규장전」에 대해 질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 활동에서 느낀 김시습과 「이생규장전」에 대해 떠올린다.</li> </ul>		3분
전 개	설명 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개성이 작품에 드러나는 방식과 고전문학의 관계를 설명한다.</li> </ul> <p>→ 포트폴리오 활동을 확인하는 질문을 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김시습은 왜 계유정난을 겪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전기소설(傳奇小說)을 썼는지 말해봅시다.</p>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작가의 개성이 작품에 드러나는 방식과 고전문학의 관계를 이해한다.</li> </ul> <p>→ 포트폴리오 활동에 대한 질문에 대답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다.</p> </div>		10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트폴리오 활동과 관련된 「이생규장전」과 관련된 김시습의 생애와 가치관이 나타난 자료를 제시한다.</li> <li>• 김시습의 생애와 가치관을 설명한다.</li> <li>• 김시습이 「이생규장전」을 쓴 이유를 설명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과 관련된 김시습의 생애와 가치관, 소설을 쓴 이유를 이해한다.</li> <li>•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질문한다.</li> </ul>		
시범 보이 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고유한 생각과 언어, 주제 형상화 방법이 드러난 부분을 안내하는 표를 제시한다.</li> <li>•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을 찾는 방법을 사  <div data-bbox="406 1422 758 181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예)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에서 어떤 대상에 대한 절의를 지킨다는 작가의 가치관이 드러난다는 거네요. 어디 봅시다. 최처녀와 이생이 만나는 부분을 볼까</p> </div>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을 파악하는 방법이 나타난 표를 이해한다.</li> <li>• 표를 활용하여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을 찾는 방법을 이해한다.</li> <li>• 김시습의 개성을 포트폴리오에서 학습한 김시습의 체험과 연관하여 대답한다.  <div data-bbox="774 1590 1109 181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김시습이 진정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최처녀를</p> </div>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고 구  <div data-bbox="1125 896 1268 1816"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10            술법을 활용하여 작가의 개성이 드러나는 부분을 찾는 것을 시범 보일 때 실패 사례를 제시한다.</p> </div> </li> </ul>	

	<p>요?... (생략)...아니야, 이건 정의, 절의량은 맞지 않는 것 같네요. 다른 부분을 봐야겠어요. 5쪽에 이걸까요? 최처녀가 이생과 꼭 결혼하겠다고 말하는군요. .... (생략).... 아, 이 부분에서 절의가 드러나는 것 같군요.</p> <p>• 김시습이 이러한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주제를 그의 체험과 관련하여 질문한다.</p> <p>김시습이 최처녀를 통해 절의를 드러낸 것은 그의 체험에서 어떤 부분과 관련이 있나요?</p>	<p>통해 표현하였습니다.</p>		
<p>해결 방법 찾기</p>	<p>• 모둠원들과 함께 교사의 시범을 바탕으로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을 찾고 이를 포트폴리오에서 학습한 그의 체험, 사상과 연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한다.</p>	<p>• 모둠원들과 함께 표를 활용하여 「이생규장전」에 나타난 김시습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이를 포트폴리오에서 학습한 작가의 체험, 사상과 연결시킨다..</p>	<p>• 모둠 활동 • 한 모듬은 5명으로 구성된 • 순회지</p>	<p>10 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둠을 돌아다니며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고, 모든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한다.</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예) 00는 송도랑 개성이 어딘지 생각나요? 한국사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조선 바로 전에 있었던 나라가 어디였지요?</p> </div>	<p>예) &lt;지식 적용하기&gt; 활동 예시 참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주제 형상화 방식을 정리하여 작가의 개성과 작가의 삶이 문학 작품에 나타나는 방법을 이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김시습의 「이생규장전」 주제 형상화 방식을 정리하여 작가의 체험과 관련된 표현 방법을 이해한다.</li> </ul> <p>예) &lt;정리하기&gt; 활동 예시 참조</p>	5분
정리	<p>형성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표 작성을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형성평가를 작성한다.</li> </ul>	2분
	<p>다음 차시 안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차시를 안내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음 차시에 준비 할 내용을 이해한다.</li> </ul>	1분

## 5) 교수 · 학습 자료

### <배우기 전에>

1. 포트폴리오 활동을 떠올리며, 김시습과 「이생규장전」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 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최초의 소설을 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 그는 『금오신화』를 써서 자신의 독특한 사상을 표현하였다.

### <지식 이해하기>

1. 작가의 체험에서 비롯된 개성을 어떻게 문학 작품에 생산하는지 알아봅시다.

개성(個性)이란 ‘다른 사람이나 개체와 구별되는 고유의 특성’을 말한다. 작가는 자신의 관점에서 대상에 대한 생각을 문학 작품으로 표현한다. 작가만의 고유한 문체나 표현 방법 등을 통해 자신이 생각한 주제를 전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가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 되는 작품의 표현과 형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작품의 언어 사용 방식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의 양상, 비유와 같은 특정 표현 등을 주의 깊게 읽어야 작가의 개성을 파악하며 문학 작품을 읽을 수 있다.

특히 고전문학에서 작가는 자신의 체험을 문학 작품으로 형상화할 때 현대 작가들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 흔히 고전문학을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고전문학 작가의 글쓰기 방식을 이해하는 데 작가의 체험과 생각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질문) 김시습은 왜 계유정난을 겪고 비현실적인 내용의 전기소설(傳奇小說)을 말해봅시다.

예시 답)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현실을 부정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법이였다.

2. 다음 작품을 통해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세상 사람들 생업을 사랑해  
구구하게 전택을 차지하지만  
나, 한 잔 술에 취해  
산중에 자취를 감추리라.

김시습은 다른 사대부들과는 달리 밭이나 집과 같은 경제적 토대가 전혀 없거나 포기한 상태에서 산 속에 들어가 살았다. 전통적으로 사대부들이 벼슬을 쉬고 고향이나 지방으로 내려오는 것은, 먹고 사는 데 곤란이 없는 경제적 여유 위에서 시를 쓰거나 벗을 만나고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김시습은 현실, 세상과의 갈등으로 인해 방외로, 세상 밖으로 탈출하고 말았다. 그의 불화는 자유분방한 성격과 집안 사정, 세조가 어린 조카인 단종의 왕위를 빼앗은 계유정난(癸酉靖難)에서 비롯된다. 그는 소년, 청년 시절에 절의, 정의를 중심 가치관으로 삼고 공부를 하였다. 그러나 계유정난과 같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나자 혼란에 빠지게 된 것이다.

그러나 김시습은 방외인의 삶을 살면서도 세상일에 마음을 두곤 했다. 산으로 들어가 스님으로의 생활을 하던 때 “날마다 물을 떠 놓고 예불을 올리고, 예불이 끝나면 통곡하고, 곡이 끝나면 시를 짓고, 시를 짓고 나면 다시 통곡한

후 불살랐다.”는 기록이 전해진다.<sup>37)</sup>

김시습은 이러한 절의를 향하는 마음과 세상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은 괴로움을 『금오신화』를 통해 그리고 있다. 김시습은 『금오신화』를 쓰고 나서 훗날 누군가 이 의미를 알아줄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김시습은 마음 들 곳 없는 자신의 복잡한 현실과 절의에 대한 지향을 여러 방법들을 통해 작품에 「이생규장전」에 표현하고 있다.

※포트폴리오의 학습 내용과 「이생규장전」의 본문을 함께 봅시다.

### < 지식 적용하기 >

1. 다음의 표를 활용하여 작가의 주제 전달 방법과 가치관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봅시다.

소설 속 내용과 장치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와 생각
●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	● 어떤 대상에 대한 절의를 지킨다.
● 시공간 배경의 설정	● 쓸쓸한 감정 불러일으킨다.
● 비극적 결말	● 절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향한다. ●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마음 들 곳 없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한다.
●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건	●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뜻을 드러낸다. ●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현실의 아픔을 드러낸다.

김시습이 전기소설이라는 장르와 소설 속 특정한 장치를 통해 드러내고자 하는 생각을 그의 체험과 연관시킬 수 있습니다.

소설 속 장치와 표현	작가가 전달하려는 주제와 생각
●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	● 어떤 대상에 대한 절의를 지킨다.

37)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탈주’와 ‘해체’의 기획-매월당 김시습-」,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177-198을 학습자의 인지적 수준에 맞게 재구성.

-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인 최처녀가 좋은 집안의 남성이 아닌 이생과의 사랑을 위해서 부모님께 이생의 집안이 아닌 다른 가문에는 결코 시집가지 않겠다고 하여 이생에 대한 의리를 지켰다.
- 김시습이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을 통해 드러내는 주제를 그의 체험과 연관하여 말해봅시다.

예시 답) 흥건적이 개성에 쳐들어와 최처녀를 겁탈하려 하자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하였다. 결국 도적은 최처녀를 죽이고 살을 발라내었고 최처녀는 끝까지 목숨이 아니라 이생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최처녀가 죽은 후 귀신이 되어 이생과 다시 만났을 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므로 쇠잔한 몸뚱이가 치욕을 면한 것만 다행이라고 여기지요.”라고 말하여 절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모든 최처녀의 행동은 김시습이 삼촌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사약을 먹고 죽게 된 단종에 대한 절의를 지키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 시공간 배경의 설정
- 쓸쓸한 감정 불러일으킨다.
- ‘송도, 개성, 흥건적의 난’의 의미를 김시습의 체험과 연관하여 생각해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시공간을 자신이 살던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로, 그 수도와 번성했던 지역인 송도, 개성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고려 말기 중국의 흥건적의 난을 배경으로 설정하였다. 끝나가는 고려시대는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김시습의 방외인으로서의 쓸쓸한 삶을 구현한 것이다. 김시습은 당대 사대부 사회의 어느 곳에도 들지 않고 방외인으로서 떠도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서 고려나 고조선의 옛 도시였던 송도나 개성 등 여러 지역을 방문했다. 이처럼 자신의 쓸쓸한 삶과 마음을 소설 속 배경으로 구현한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극적 결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절의라는 가치를 끝까지 지향 한다.</li> <li>●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 마음 들 곳 없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한다.</li> </ul>
<p>예시 답) 이생은 최처녀가 떠난 뒤 몸조심하라는 당부에도 여인만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수개월만에 세상을 떠난다. 이는 최처녀를 향한 절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생이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결국 죽게 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알아주지 않아 마음 들 곳 없는 현실을 초월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시습은 오세동자라고 불리는 천재였지만 당대 사람들은 그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래서 당시 사대부들의 글쓰기 방식과는 다른 전기소설을 썼고, 비극적 결말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현실을 초월하려고 하였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뜻을 드러낸다.</li> <li>●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 현실의 아픔을 드러낸다.</li> </ul>
<p>예시 답) 이생이 홍건적의 난 때 도적들에게 죽은 최처녀의 영혼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굉장히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건이다. 이생은 죽은 최처녀와 다시 살게 된 뒤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최처녀와 시만 나눈다. 이생이 죽은 최처녀와의 만남이라는 비현실적인 사건에서 행복을 얻는 것은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작가의 뜻과 그로 인한 아픔을 드러내는 작가의 표현이다. 김시습은 뛰어난 글쓰기 실력을 가졌지만 계유정난으로 그것을 발휘하지 않고 떠나버렸고, 성종의 즉위 이후에도 다른 사대부들의 사상과는 달라서 그런 실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비현실적이고 환상적인 사건은 김시습에게 기회를 허락하지 않는 현실에서는 이를 수 없는 뜻을 드러낸다.</p>	

<정리하기>

1. <지식 이해하기>와 <지식 적용하기> 활동을 바탕으로 작가가 「이생규장전」에서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소설의 주제로 표현하고 있는지 그의 체험을 바탕으로 정리해 봅시다.

- ‘절의’와 ‘자신의 가치와 다른 현실의 초월’, ‘아픈 현실 인식’ 등의 말을 넣어 정리해 봅시다.

예시 답) 김시습은 「이생규장전」에서 최처녀가 이생에 대한 절의를 지키는 행동을 통해 자신이 단종에의 절의라는 가치를 지키려는 마음을 표현했다. 귀신이 된 최처녀를 이생이 다시 만나 사랑하는 환상적인 사건에서는 방외인인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알아주지 않는 현실에 대한 아픔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생이 결국 최처녀를 잊지 못해 죽게 되는 비극적 결말은 김시습의 가치와 다른 현실,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현실을 초월하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형성평가>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가치관 표현 방식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하여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언어 사용 방식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의 양상, 비유와 같은 특정 표현 등을 주의 깊게 읽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김시습은 방외인으로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아픔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인 절의를 표현하기 위해 「이생규장전」을 창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김시습은 「이생규장전」에서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 환상적인 사건,	○ ×

비극적 결말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세상으로 인한 아픔과 절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6) 평가 자료

아래 평가 자료는 교수 · 학습 말미에 학습자들에게 작성하도록 한다. 이는 답안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아래와 같은 평가표가 주어졌을 때 ‘○’에 표시하게 된다. 따라서 ○인지 ×인지를 판단하여 점수를 매기는 것은 의미가 없다. 학습자들은 제시된 평가 문항을 읽음으로써 교수 · 학습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 이 때 평가 문항은 교수 · 학습 내용의 핵심을 간결하게 제시해야 한다. 이 문장들은 학습자들의 총괄평가의 대비를 위해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작가의 가치관 표현 방식이나 주제를 드러내는 방법을 이해하여 작가의 개성을 파악할 수 있다.	○ ×
문학 작품을 읽을 때 언어 사용 방식이나 자주 사용하는 단어, 소설에서 인물, 사건, 배경의 양상, 비유와 같은 특정 표현 등을 주의 깊게 읽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 ×
김시습은 방외인으로서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 대한 아픔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인 절의를 표현하기 위해 「이생규장전」을 창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김시습은 「이생규장전」에서 최처녀의 주체적 행동, 환상적인 사건, 비극적 결말을 통해 자신의 가치와 맞지 않는 세상으로 인한 아픔과 절의를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했다는 것을 알고 있다.	○ ×

## IV. 결 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고전문학은 작가의 삶과 사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서술자, 즉 내포작가를 설정하여 특정한 주제를 전달하려고 하는 현대문학의 실제 작가의 태도와는 다르다. 고전문학의 작가들은 자신의 삶과 가치관을 온전히 문학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전작가의 문학에 대한 태도는 현대작가의 것과는 다르다. 문학은 전문기능도 아니고 문인이 직업군의 일종도 아니던 시대의 상황을 담고 있다. 문학은 작가의 삶과 분리되지 않고 문학 창작의 목적은 작가의 내적 동기와 일치한다. 문학이 삶과 일치하던 때의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다. 작품은 창작의 맥락으로부터 떼어내기 불편할 정도로 밀착되어 있다. 그게 고전작품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그래서 당대의 문화를 이해해야 한다고 할 때 작가적 국면을 강조하는 이유가 된다.<sup>38)</sup>

따라서 김시습의 『금오신화』를 생산론적인 입장에서 교수-학습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은 고전문학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학생들은 『금오신화』에 담긴 김시습의 체험과 사상을 이해하고, 이에 따라 『금오신화』의 문학적 가치와 미학에 대하여 더욱 깊이 있게 공부하게 될 것이다. 교육과정에서도 생산이론을 학습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교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금오신화』는 생산이론으로 접근하기에 가장 알맞은 제재 중 하나이다. 그 창작 연원에 김시습만이 가진 방외인으로서의 특질과 현실 인식이 날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대문학의 작가만이 생산론적 접근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고전

---

38)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2쪽.

문학 역시 작가의 표현과 사상이 문학의 독해에 큰 도움이 된다. 보통 고전문학은 향가나 시조, 가사, 영웅소설, 애정소설, 전기소설 등의 갈래의 속성을 중심으로 교수·학습하게 된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문학의 장르 변화와 담당층의 변화가 매우 중요한 고전문학은 갈래의 속성을 이해하는 것에도 작가의 특성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시조의 경우 작가가 김천택인지 윤선도인지에 따라 그 특성이 현저하게 나뉜다. 본 고에서 연구한 김시습은 개인적인 고뇌의 결과 전기소설이라는 갈래를 한국 문학사에서 본격적으로 구현하였다. 이처럼 고전문학의 생산론적 접근은 단순히 작가와 작품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갈래 전체와도 연관이 있다. 고전문학의 한 갈래는 비슷한 환경과 사상을 가진 작자층이 있기 때문에 한 명의 작가에 대한 접근은 한 갈래의 작자층에 대한 접근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본 고에서 살핀 김시습에 대한 생산론적 접근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생산론적 접근에 주력하다보니 『금오신화』 특히 「이생규장전」의 미학적 특질에 대한 연구와 접근이 부족하다. 『금오신화』는 한국 최초의 고전소설로서 문학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 중 「이생규장전」은 애정소설로서의 우수한 면모를 보이고 있고 「만복사저포기」는 전기소설로서 우수한 면모를 보인다. 시를 통해 등장인물의 내면 세계를 드러내고 사건의 진행을 돕는 장치는 김시습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학사적 의의를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교수·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소홀히 하였다. 이 부분은 고전소설의 특징에 입각한 『금오신화』 교수·학습 방안 등의 후속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김시습이라는 작가에 대한 교수·학습과 그의 작품에 대한 교수·학습의 균형점을 찾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활동의 실제 적용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포트폴리오와 활동이나 교수·학습 활동을 실제 고등학교 1학년 학습자들의 교육과정에서 적용할

현실적인 여건을 충족하는가에 대한 한계이다. 본 고의 연구를 실제로 적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실제 학습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효과적인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내용인지 증명할 수 없었다. 이 역시 실행에 대한 후속 연구를 통해 보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실행 연구에서는 본 고에서 제안한 활동의 적용 가능성과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김시습 저/심경호 역, 『매월당 김시습 금오신화』, 홍익출판사, 2000.
- 민족문학사연구소 고전문학분과, 「‘탈주’와 ‘해체’의 기획-매월당 김시습-」, 『한국고전문학작가론』, 소명, 1998.
- 박희병, 『한국전기소설의 미학』, 들배개, 1997.
- 심경호, 『김시습평전』, 들배개, 2003.
- 정재찬 외, 『문학교육개론 I』, 역락, 2014.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2』, 지식산업사, 2005.
- 최미숙 외, 『국어교육의 이해』,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 2. 논문

- 김성룡, 「고전문학교육으로서의 고전작가론」, 『고전문학과 교육』,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2012.
- 김영재, 「전기소설 교육 연구 : 『금오신화』를 중심으로」, 상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3.
- 김자현,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활용방안 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0.
- 김주섭, 「『이생규장전』의 교육적 가치와 교수-학습방안 연구」,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2.
- 박수진, 「전기소설(傳奇小說)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금오신화』

- 의 환상성을 이끌어내며」,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4.
- 박양호, 「정약용 문학의 작가론적 교육 방안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5.
- 박영매,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나타난 고전 여성작가 작품 고찰 : 성역할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1999.
- 심치열, 「문학 교과서에 수록된 「이생규장전」의 특징과 그 의미」, 『人文科學研究』 Vol.28,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0.
- 유욱자, 「『금오신화』의 현장 교육적 방안 연구」,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0.
- 유지영, 「『금오신화』 텍스트 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안」,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8.
- 우한용, 「문학교육과 작가론」, 『국어교육』,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86.
- 이혜선, 「『금오신화』의 학습자 중심 교육 방안 연구 : 「이생규장전」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09.
- 정민재, 「문학치료를 활용한 고전문학 교육방안 연구 : 고전문학 작가의 삶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 조동일, 『한국문학통사』 제 2권, 지식산업사, 2005.
- 조은정, 「1950년대 ‘작가론’의 제도화 과정 : 조연현과 『현대문학』지를 중심으로」, 『한국현대문학회 학술발표자료집』, 한국현대문학회, 2009.
- 최윤호, 「협동학습을 통한 「이생규장전(李生窺牆傳)」의 교수 · 학습 방안」,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2013.

## ABSTRACT

**In terms of the representation theory research of  
Kim-Si-Seup, Kum-Ou-Sin-Wha」 Teaching-Learning  
Method-Focused on 「Lee-Saeng-Kyu-Jang-Jeon」 -**

Lee Min-Jin

Major in Korean Language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Classic literature in that it can be seen in most near the life and Korean people of thought, have been used as educational materials in many areas. Classic literature, comparing ideas and values of the author went to live that era, because the experience is included as it is, photos and video, or a difficult past of age be implemented there is no other of the remaining media data it is possible to know the specific concrete. That can be a most effective documentary can know the past times. In the language education of until now, has been education with an emphasis the classical literature text, to the understanding of the vocabulary itself. And, it was mainly put the interest to understand the social conditions at the time of social and cultural context. However, in the context of classical literature text is carried out, the writer als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Also a look

at the historical flow of classic literature that changes in people who have perfume oil was immediately achieve a change in the literature this, it is possible to know this well.

The perspective views of the literature about the writer that writer theory. Production theory from the point of view of critical theory, and explain this in terms of representation theory. In the literary education, when reading literary works to accommodate the point of view of criticism theory, a point of view to interpret around the values and experience of the author who wrote this production theory, or that the representation theory. Also in the curriculum we are dealing with a critical theory as part of the literary education. However, this is only limited to contemporary literature, writers in the case of classical literature which occupies a major role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ext this work who wrote the work, from the point of view of production theory, teaching and learning activities have been actively not.

In this study, from the point of view of Kim-Si-Seup, 『Kum-Ou-Sin-Wha』 in the 『Lee-Saeng-Kyu-Jang-Jeon』, of production theory of the criticism theory in the classical literary works, teaching and learning. It was studied ways to learning. 2012 was published in the textbook of literature of high school along the revised language arts curriculum, to analyze the classic literary works writer became apparent, it was selected that can be accessed in a productive point of view writer. Then, after the discussion whether to guide how the association of classic literary works and writers of such writers in the textbooks, among them, how they were teaching and learning the red kidney learning and his work

whether it was closely discussed. The textbook of activities and security, are utilized as most of the teaching and learning materials among the 『Kum-Ou-Sin-Wha』 of Kim-Si-Seup on the basis of production-theoretic approach that is presented in the 2012 revised language arts curriculum and it is 『Lee-Saeng-Kyu-Jang-Jeon』 was presented the search activities using. To class time, which is defined in the school the life of Kim-Si-Seup and of 『Kum-Ou-Sin-Wha』 to explore is, of the portfolio form that can be utilized for such as after-school activities because they follow the time constraints It was constructed activities. And, it was studied how to approach from production-theoretic point of view of the classical literary works make up the teaching and learning model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activities of these portfolios.

In the present study, is utilized as the proposed activities that can be educational to approach from the production-theoretic point of view to explore the values and life of the future of classical literature writer, this way, can help to improve the literary ability of the learner to expect to be able to have.